

평신도



한국 평신도 희년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 16)

2017 평신도 주일 - 2018 평신도 주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인사 회장 인사말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 **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이야기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4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주보성인과 나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시 시가 있는 풍경
-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회장 인사말 / 손병선

특집

04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08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김문태

만남

12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19 평신도가 뵈다 / 김주완

나눔

22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 이귀련

24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27 나의 신앙 선조 / 손희송

이야기

30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4 / 박정일

34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 김정일

37 후보성인과 나 / 문덕영

배움

39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박혜원

42 평신도 양서 / 김선동

시

44 시가 있는 풍경 / 김용해

소식

45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송란희 가밀라,
이귀련 체칠리아, 이창훈 알폰소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평양교구 사무국 제공
(1933년 가톨릭활동협의회 회의)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회장 인사말

평신도 희년과 부활의 기쁨, 평화, 사랑이 온 누리에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오늘의 현실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착한 사마리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임마누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평협 가족 여러분과 각 가정에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활 시기, 평신도 희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미려한 사람이 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받은 후, 그간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평협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평신도』지 지면을 통해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공을 초월해 기도 안에서 자주 만나 뵈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믿음의 희년 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 이어져야

은총의 사순시기에 각자가 실천해 온 기도를 통해 영적인 주님과 친밀한 나눔을, 자선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단식을 통해 내적 가난함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체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 자선, 단식을 통해 얻은 부활의 기쁨 속에서 믿음의 희년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이 뒤따라야겠지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

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7-18).

바오로 사도의 권고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하느님을 향한 기도의 힘을 통해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과 일치하는 은총이며, 의지와 정성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착한 사마리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선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참다운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진 바를 나누는 자선 행위는 곧 나를 끊는 행위이지요.

겨자씨와 누룩이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해 몇 배의 크기로 변하듯 조그만 선행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의 씨앗을 뿌려가는, 사랑이 넘치는 평협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적 권고인 청빈, 정결, 순명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 가난, 내적 가난을 즐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애덕과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움과 채움의 조화와 균형으로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는 부르심에 온전히 맡기고 순명하고자 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뉜 시편 - 감사와 찬미, 흠숭, 청원, 용서 - 만이라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희년과 부활의 기쁨을 담아내는,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평협 가족 여러분께서도 주어진 일상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참살이 해가 될 수 있게 은총의 샘이자 영적 충만의 창고인 복음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활 시기, 평신도 희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 회장 수락 인사

선조들의 믿음 생활을 거울삼아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초기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 순례의 여정을 교구별로 마련된 다양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희년의 전대사 특전도 누리시고요. 선조들의 믿음 생활을 거울삼아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 개방되어 있기에 한계 없는 용서, 서열 없는 봉사, 대가 없는 포기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신앙의 빛을 받을 때, 지혜를 얻고 현명해져 기쁘게 봉사하는 가운데 긍정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이 곧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린 지시입니다”(1코린 7,17).

아멘!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원컨대 우리 대한의 모든 동포와 형제자매들이여, 크게 깨닫고 용기를 내어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하여 천주님의 아들로써 현세를 도덕시대로 바로잡고, 더불어 태평을 누리면서 죽어서는 천당에 가서 상을 받아 다 같이 무궁한 영복을 누리기를 천만 바라는 바입니다.”

(안중근 의사 옥중 자서전 「안응철 역사」에서)

외세의 침탈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반도에서는 민족의 혼과 함께 복음의 빛도 사그라지는 듯 보였다. 악한 세력의 침범과 탄압을 물리쳐 온 한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되었다. 그러한 역사가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은 것이 일제강점기였다. 면면히 이어져 오던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신앙마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때, 믿음으로 한반도를 지탱해 온 두 기둥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민족’은 둘이 아니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함께 누리야 할 한 형제였다.

외세에 맞서 독립을 지켜낸 혁명가이기에 앞서 주님이 보여 주신 평화의 길을 좇아간 ‘평화의 사도’ 안중근(토마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들려준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그 진리가 당신 뜻대로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누리하고자 했던 이상향이다. 그를 오늘에 되살리는 길은, 목숨마저 초개처럼 가벼이 여기며 그가 걸어간 평화의 길을 복원시키는 것뿐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9 아홉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Ⅶ 안중근 토마스(1879-1910년)

개인·사회 총체적 구원 바란 선각자 온전한 평화 갈구한 ‘평화주의자’

안중근(토마스) 의사에게는 ‘한국의 모세’, ‘한국의 사도 바오로’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중근은 여전히 의사(義士) 안중근일 뿐이지 신앙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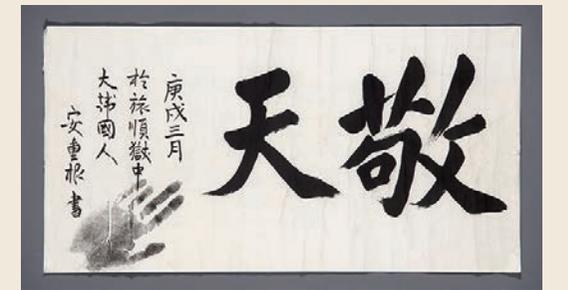
아직도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중근 의사가 신자였어?”라고 되묻는다. 안 의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물론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그간 무관심 속에 방치하다시피 해 온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노길명 고문(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은 “안중근 의사는 신앙심과 애국심을 조화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노 교수는 “안 의사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 현세와 내세,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구원시키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선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교회 차원에서 신앙인 안중근에 대한 연구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미사도 안 의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1979년 9월 2일 서울대교구 명동 주교좌대성당에서 봉헌된 것이 처음이다.

신앙인 안중근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1990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안중근 의사 추모자료집’을 간행한 것이 기점을 이룬다. 이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93년 ‘안중근의 신앙과 민족 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간헐적인 노력이 있어 왔지만, 신앙인 안중근의 상을 한국 교회의 토양과 영성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 의사를 모범적인 신앙의 사표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황종렬(레오) 대구가톨릭대 신학과 겸임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신앙과 민족의식의 통합, 아시아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는 흐름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신앙살이 방식을 보다 더 건강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의 의인’ 안중근

안중근은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성리학을 전래한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26세손으로 1879년 9월 2일(음력 7월 16일)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首陽山) 아래에서 아버지 안태훈(安泰勳)과 어머니 조성녀 마리아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명(兒名) 겸 자(字)는 응칠(應七)이다. 7세 때(1885년) 부친 안태훈을 따라 일가 70~80명과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 청계동(淸溪洞)으로 이주했다. 16세 때(1894년) 1살 위인 김아려(金亞麗, 1878-1946년)와 혼인해 2남 1녀를 두었다.

1897년 1월 11~12일 빌렘(Nicolas Joseph Marie Wilhelm, 한글명 홍석구) 신부로부터 도마(Thomas)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당시 안중근 일가는 물론, 청계동 주민 모두가 한꺼번에 천주교에 입교해 산간의 이 마을은 한낱한시에 교우촌으로 거듭나게 됐다.

천주교 입교 후 안중근은 홍 신부로부터 열심히 교리를 배우는 한편, 불어도 익혀 누구 못지않은 독실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다. 청계동 본당



▲ 뤼순 감옥



▲ 빌렘 신부 면회



▲ 뤼순 감옥 내부

신부의 복사로 활동하면서 흥 신부를 수행해 황해도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활동에 투신하였다. 그 무렵 안중근은 청계동을 사목 방문한 당시 조선교구장 뫼텔 주교를 해주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돈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

안중근은 1906년(28세 때) 가족을 데리고 청계동을 떠나 평안도 진남포로 이주했다. 이 무렵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교육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남포 본당에서 운영해 오던 돈의학교(敦義學校) 재정을 부담하며 제2대 교장에 취임해 교육을 통해 민족의 길을 밝히려 애썼다. 또 본당에 설치한 야학교인 삼흥학교(三興學校)의 재정도 맡았다. 이러한 노력 모두 신앙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모색으로 읽힌다.

1907년 1월 31일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이 일어나자 이 운동의 관서지부(關西支部)에서 활동하며 민족의 삶을 옥죄어 오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 평화적인 모색을 통해 민족의 미래에 평화를 맞아오려는 그의 모색은 끊임없이 좌절을 맞 봐야 했다. 그러한 거듭된 좌절 끝에 그는 무력 투쟁의 길에 나섰다. 신앙에 바탕한 인간적 고뇌 끝에 다다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07년 겨울, 안중근은 러시아령 블라디보스

토크(해삼위)로 건너가 그곳 한인사회의 유력자들을 대상으로 의병부대 창설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이범윤(李範允)의 동의를 받아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했다. 1908년 초에는 연해주의 한인촌을 돌아다니며 무기, 자금 등을 확보해 국외의병부대(國外義兵部隊)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총독에는 이범윤, 총대장에는 김두성(金斗聖)을 추대하고 자신은 참모중장(參謀中將)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의병과 무기 등을 비밀리에 수송해 두만강 근처에서 국내진공작전(國內進攻作戰)을 도모했다.

이 시기 안 의사는 수백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넘나들며 일본 군경과 싸우는 등 독립투쟁을 벌였다. 그런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민족의 원수, 동양 평화의 적 이토를 몸소 처단하고자 결심했다. 1909년 10월 21일 동지 우덕순·유동하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 하얼빈에 도착해 거사를 준비했다. 그는 거사에 앞서 원흥에게 안길 총알에 십자가 표시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하느님께 거사의 성공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동양 칩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렸다.

의거 후 안중근은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서 검찰관의 심문을 받으며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죄

로 고종 강제 폐위와 명성황후 시해,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일본 천황의 아버지를 죽인 죄 등 15개 항목을 열거했다. 옥에 갇혀 심문을 받고 있을 때, 이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1909년 11월 3일 안 의사는 한겨울 삭풍이 매서운 뤼순(旅順) 감옥으로 옮겨져 수감됐다. 1910년 3월 15일,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한 안 의사는 3개월 전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자서전 ‘안응칠역사’와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서둘러 마무리하였다. 특히 ‘동양평화론’을 완성하기 위해 상고도 포기하고, 사형 집행을 보름 정도 연기해 달라고 탄원했으나 묵살됐다.

이 무렵 안 의사가 갇혀 있는 감옥에 관계하던 많은 일본인이 그에게 붓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해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등의 유묵 200여 점을 남겼다. 사형을 앞둔 시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엄한 처신이었다.

1910년 3월 26일, ‘하얼빈 의거’ 5개월 만에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 뤼순 감옥 형장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조선인과 중국인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형장으로 나서기 전 일본 검찰관이 안 의사에 게 마지막 유언을 물었다.

“당신들이 동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동양 평화 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하오.”

그러나 일제는 그의 마지막 요청마저 묵살했다. 오전 10시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신앙인 안중근은 하루 전날 동생 정근(定根)과 공근(恭根)이 면회할 때 건네준, 어머니와 아내가 밤새 지은 한복을 입고 의연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성녀 마리아가 아들 안 의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한 대목이다. 신앙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자신들이 걸어갈 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유해는 끝내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안 의사의 죽음이 민족 독립운동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을 염려한 일제가 몰래 빼돌린 것이다. 100년이 지난 세월,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서울 효창공원에 그의 가묘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돈의학교 교장 시절



▲ 부인과 두 아들

의연히 죽음을 향해 걸어간 신앙인 안중근 토마스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한 소망이 ‘동양 평화’다. 그가 갈구한 평화가 이뤄진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걸어간 평화의 길이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 길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믿음의 등불이 사그라져 가던 시대, 신앙인 안중근은 평신도 사도직의 전망을 새롭게 열어젖힌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의 신앙 실천과 고통 받고 있던 민족에 대한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신앙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최홍준 회장】

하느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평신도가 되어야

대담 · 정리
김문태 편집장



▲ 최홍준 회장

2018년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한편,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싸늘하지만 봄기운이 느껴지는 지난 3월 2일, 서울 명동에 자리한 가톨릭회관 5층 평협 사무실에서 최홍준 파비아노 회장을 만났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18대와 제19대 평협 회장을 역임하였다. 1942에 태어나 경북 영천에서 성장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KBS PD와 작가로서 라디오와 TV를 넘나들며 다양한 드라마·영화·창극 등을 비롯한 픽션과 다큐멘터리·홍보·행사 등의 논픽션 대본, 그리고 25년간 뉴스영화인 '대한뉴스' 원고를 집필하였다.

❖ 세례는 언제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왜관의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나흘째 되던 날 외할머니가 저를 성당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흘 만에 해야 하는데 하루 늦게 갔다고 파리와방전교회 본당신부님이 외할머니에게 대제를 두 번 지키라고, 두 번 금식하라는 보속을 주셨대요. 그 본당이 경상도에서 계산동 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성당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신자 가정에서 자라며 당연한 듯이 신앙생활을 했지요. 어릴 때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에서 복사를 서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때 들었던 신부님 강론이라든지 복음서 내용이 어렴풋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지금까지 신자 생활의 바탕이 되는 자양분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착하게 살되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터득했다고 볼 수 있지요. 아버지가 보시던 교부들의 신앙서적이거나 교회문헌이나 교회사 같은 것들을 곁에서 보며 이웃이 의롭지 못하면 정의를 내세우고, 하느님 보시기에 어긋난다 하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어요.



▲ 한국 평협 40주년 백서 출판 기념



▲ 회장 임명장 수여

❖ 교회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려대 가톨릭학생회뿐만 아니라 대한 가톨릭학생총연합회에서 활동했어요. 정부가 1961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는데, 1962년 7월에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가 산아제한과 생명을 주제로 한 전국대회를 개최했어요. 이어 1963년 7월에는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발표한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라는 회칙을 가지고 제9차 가톨릭학생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고요. 군비축소와 공동선을 강조한 문헌이었어요.(요한 23세 교황은 '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토대로 하는 모든 민족들의 평화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이 회칙에서 하느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차원에서 '지상의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에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고 전제하였다.) 운현궁 앞 가톨릭학생회관에서 3박 4일간 토론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중고등국장이자 대변인을 하던 제가 선언문을 낭독했지요. 당시에 나상조 신부님과 김철규 신부님이 참석해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신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 평협에서 봉사하시게 된 계기와 지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81년 10월 18일 여의도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집전으로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KBS PD를 하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던 중이었는데, 그 행사 대본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교회 행사에 대본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두 차례 주재하신 1984년 5월 6일의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과 103위 순교자 시성식', 그리고 1989년 10월 8일의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의 대본을 쓰고 교황 제대 구역에서 진행을 돕는 영광을 얻었지요. 그동안 방송계에서 축적된 역량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나를 하느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평협에 인연이 닿았지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울평협의 홍보분과위원장과 한국평협의 교육분과위원장으로 봉사했어요. 그 후 사무총장 8년, 부회장 2년을 했지요. 그러다가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 회장 때인 2010년 초에 평협회장으로 선임돼 4년간 봉사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은

124위 하느님의 종과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운동이었어요. 103위 시성식은 파리외방전교회의 주도로 1939년 기해박해 이후의 순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한국 교회의 힘으로 그 이전의 순교자들을 시복시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평신도의 열기가 시복시성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요. 마침 2011년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 시복시성을 평신도운동으로 일으키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따라 시복시성 기도운동으로 묵주기도와 성지순례를 기획했어요.(실제로 한국평협은 125위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을 위하여 한 위당 1억 단씩 총 124억 단 묵주기도 봉헌운동을 펼치는 한편, 제주도를 비롯한 순교성지를 도보로 순례하는 현양운동을 개최하였다.)

그해 12월 23일에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일 주교님과 민병덕 신부님, 전국 각 교구 평협 회장단이 교황청 시성성 장관인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님을 방문했어요. 한국 평신도들이 펼친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전개과정을 담은 비디오와 자료집을 만들어

제출했지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국 평신도들의 열기를 교황청에 전달한 거예요. 평협이 주관하고 평신도들이 124위 시복에 불을 붙였던 셈이지요.

❖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5년에 끝났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문헌이 번역이 되고 사회에 적용이 된 것은 1967년이었어요. 공의회는 교회헌장이나 평신도교령에서는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이 평신도라고 나오는데, 1987년 세계주교대의원회가 평신도를 주제로 개최한 시노드에서는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봤어요. 「교회헌장」 제5장에서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을 말하면서 평신도에게도 성덕을 강조했는데,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했을 때 평신도로서의 성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평신도들은 나 자신부터 신앙 쇠신을 해야 하고, 복음을 책으



▲ 18대 서울 평협 출범

로 읽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해요. (실제로 그는 서울올림픽 전후의 3년간 안산의 예술인아파트에 살면서 포콜라레 운동을 접한 후, 머리모만 알아듣는 신자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서 직접 복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솔직한 바 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이웃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복음화가 돼서 빛이 돼야 하지요. 개인 성화 이후에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고쳐나가야 하거든요. 회개해서 하느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삶이 돼야지요. 우리 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찰과 참회와 정개와 고백과 보속의 삶을 사는 한편, 하루 30분 이상 성경이나 교회문헌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 해요.

❖ 앞으로 평협이 나아가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느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가톨릭 정신이 아닌가 해요. 평협의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사도직협의회나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나 하는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준비할 때,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구반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본당 사목회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협과 본당 사목회장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1998년 5월 30일에 교황청에서 전 세계 운동 단체와 새로운 공동체 대표들을 모아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라칭거 추기경님이 기조강연에서 성령의 카리스마에 의한 평신도 운동의 열기를 일선 사목자들이 꺼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2006년 6월 4일에 그분이 베네딕도



▲ 교황청 시성성 장관 방문

©가톨릭신문

16세 교황이 돼서 다시 그 행사를 개최하셨고요.

베드로적인 교회, 마리아적인 교회, 요한적인 교회를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마리아적인 교회에 속하는 운동 단체들이야말로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활동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가운데 운동 단체들은 지역교회나 보편교회와 일치해야 하고, 교황과 주교에게 일치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새로운 복음화’를 말씀하셨고, 지금 교황님도 ‘복음의 기쁨’을 안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 복음을 살면서 개인 성화와 교회 건설, 곧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할 때 사회가 변화하게 마련이지요. 여기서 운동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신자들이 사도직에 나설 수 있도록 본당 사목회장도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가는 활동 방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해요. 평협과 본당 사목회장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평신도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하느님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달려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산평협 사람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도용희 토마스 아퀴나스
부산교구 평협회장



2월 24일 토요일 오후, 부산교구 주교좌 성당인 남천 성당을 찾았다. 성모동산을 지나 성당 뒤편의 부산교구청에 들어서니 1층 부산 평협 사무실에 도용희 회장(58)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 오전에 도보 성지순례 행사를 마치고 힘드셨을 텐데도 깔끔한 양복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울에서 내려온 형제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만남 내내 진솔한 나눔과 따뜻한 형제애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도용희 회장께 감사드린다.

❖ 오늘 도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요. 부산의 평신도들은 매달 정해진 시간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교구민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시복, 시성을 지향하며 도보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 5월에 교구설립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3박 4일 일정으로 주교좌 남천 성당에서 출발해 부산지역 주요 신앙 사적지 ~ 울산 언양 지역 신앙 사적지 ~ 밀양을 경유하여 중앙 성당까지 돌아오는 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시복(諡福)을 지향하며 평신도들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수영장대순교성지에서 오륜대순교자성지까지 14km에 달하는 거리를 6년(70회)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그 공로와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지난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했을 때, 광화문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울산대리구는 둘째 토요일에 복산 성당 ~ 병영 순교성지 구간 순례) 오전 9시에 삼랑진역을 출발해 김범우순교자성지까지 4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5km 도보순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평신도들은 윤지충 바오로 외 부산교구의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두 분 복자가 하루빨리 시성되고, 순교자 김범

우를 비롯해 부산 지역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쓰신 신앙 선조의 시복을 지향하면서 매달 도보순례를 계속할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도보 성지순례

❖ 부산평협 신자들이 남다른 형제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부산평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우리 부산교구 평협은 1958년 ‘부산 가톨릭 신자협의회’를 결성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부터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교구장님이 인준한 제 단체 대표들과 각 본당 평협 회장, 그리고 교구장이 지명한 평신도 회원들이 현재 부산평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산평협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평신도 사도직 제 단체들이 잘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기구 및 본당협의회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황철수 바오로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구장님께 적극 건의하기도 합니다.”

❖ 지난해는 교구 설정 60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어떤 기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주 중요한 기획 사업이 있습니다. 교구 내 본당 124곳을 포함해 교구의 성지 및 신앙 사적지를 순례하는 특별한 사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를 포함하여 타 지역에 있는 성지순례는 자주 다니면서도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신앙의 뿌리와 본당을 찾아나서는 일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우리 부

산교구의 성당들을 올해 한 번 다 순례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순례하다 보면 교구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물론, 교구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관련 책자도 하나 발간했습니다.”

124개 본당 순례 위한 책자 발간

도용희 회장이 잠깐 말을 끊더니 책자를 꺼내 보여 주었다. 「본당순례」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였다. 부산교구의 각 본당에 대해 소개하고 순례 확인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순례를 모두 마친 신자들에게는 교구장 주교님의 인증서와 부산교구 평협이 특별히 제작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3년 전, 춘천교구에서 만든 교구 본당 성지순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했다. 「본당순례」 순례 책자 외에도 「부산평협」 기관지와 「제 단체 현황」 등 3종의 책자를 발행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 부산평협에 대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우리 부산평협 임원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해 보자는 분위기가 넘칩니다. 우리 부산교구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전체, 밀양, 삼랑진, 김해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고 지역이 넓어서 전체가 자주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역을 11개 지구로, 울산광역시를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총 14개 지구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교구 평협은 격월로 지구 내 본당회장님들의 회의 개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회의 개최일에는 평협 임원 중 부회장 1명, 분과장 1명이 팀을 이뤄서 회의에 참

석해 지구 소식을 듣고 교구의 중요한 소식과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을 전달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 지구별 모임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구별로 피정도 가고, 단합대회도 하고 음악회도 열면서 자주 모입니다. 단위지구별로 잘 이뤄지고 있는 전통은 한국 가톨릭교회 16개 교구 중에 부산교구가 가장 꾸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웃음) 또 우리 교구 평협이 주관을 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째 이웃사랑 실천에 남다른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사랑·봉사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가톨릭 마라톤 대회

❖ 올해는 평신도 회년입니다. 각 교구마다 평신도 회년을 경축하고 평협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산 평협은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우리 평협 상임위원들이 김범우순교자성지 교육관과 피정의 집에서 1박 2일로 피정 겸 연수를 가졌어요. 그곳에서 평신도 회년을 잘 살아내기 위한 실천 다짐을 했는

데, 몇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구 내 본당 및 성지 순례하기입니다. 교구 내 성당들을 가족과 함께 순례한다면, 가정 성화도 이루고 우리 신앙의 내적 쇄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교구장님 사목지침에 따른 실천사항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올해 사목지침은 신·망·애 향주삼덕을 통한 본당공동체의 영적쇄신(1) '믿음의 해' 입니다. 우리 평협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인이나 단체 별로 믿음이 깊어지고 생활이 기쁨으로 이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셋째, 올 한 해 우리 평협은 이웃과 화해하고 냉담자를 회두 권면하는 데 힘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 영세하는 이들은 줄고 있고, 미사 참여율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냉담 교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정작 염려하시는 것은 단순한 신자수의 감소가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처럼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평신도 회년'이라는 큰 선물을 내려주셨다고 봅니다. 평신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교회의가 회년을 선포하고 교황청이 회년 전대사까지 부여한 사례는 세계 가톨릭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올해 회년을 맞아 우리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주제 성구로 새 복음화의 증인으로 거듭 나라는 준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회년이 그저 구호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회년 정신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교회의 영적 쇄신에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평협 상임위원들이 김범우순교자성지 교육관과 피정의 집에서 1박2일로 가진 연수회. 부산평협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넘친다.

7월 21일 부산 평신도대회 개최

❖ 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깊은 뜻을 살리기 위해 부산평협이 특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산평협은 6월 16일에 평신도 회년 특별기획으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평신도 교령'(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을 하고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참여해 열린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21일에는 평신도 회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평신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주교좌 남천 성당에서 교구장님 주례로 평신도 회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을 기념하며 오륜대순교자성지까지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보 성지순례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도용희 회장은 걷고 뛰는 데는 늘 자신이 있는,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다. 2002년 부산 썸머 비치 울트라 마라톤(100km)을 완주했을 정도다. 마라톤을 매개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부산 용호동에서 '도마스 이비인후



과의원'을 운영하는 도용희 회장은 의학박사 학위를 가진 명이다. 기술이 아닌 인술(仁術)로 치유하는 그는 '그리스도인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자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꼭 필요한 '굿닥터'가 되고자 노력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용희 회장을 굿닥터로 만들어낸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듯했다.

❖ 도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체험담이라기보다는 저의 소소한 신앙고백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고,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제 아내는 저보다 일찍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세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나름 힘들었던 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느라 온갖 스포츠에다 게임, 각종 취미 활동에 폭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것도 잠시일 뿐,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저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누군가가 저를 성당으로 초대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집 근처의 남천 성당에 무작정 찾아가게 됐는데, 그날이



▲ 부산평협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삼랑진역을 출발해 김범우순교자 성지까지 4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5km 도보순례를 해 오고 있다.



▲ 도보 성지순례를 마친 뒤 시상하는 도용희 회장

마침 예비신자 환영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이벤트라는 느낌을 받았지요. 놀랍기도 하고 약간은 설레었습니다. 바로 등록을 해서 6개월 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교리를 마쳤습니다. 이듬해 부활절에 김정옥 사도 요한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그날 병원 개원 축복식도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이처럼 따뜻이 받아주셨으니 저는 성령의 이끄심이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또한 25년 째 무탈하게 '5공 수사대'(이비인후과 의사)로 이렇게 무사히 활동하게 된 것도 주님의 각별한 보살핌이라 믿고 싶습니다.”

100km 마라톤 완주의 목주기도 체험

❖ 특별한 목주기도 체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1997~98년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 삼아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날마다 많은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해야 하는 제 직업상, 구부러진 자세 교정에도 좋고 단시간에 운동량도 많다는 장점에 매료되어 틈나는 대로 손에 목주를 들고 기도하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달리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산 가톨릭마라톤동호회(약칭 가마동)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대회에도 곧잘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프(21km), 풀코스(42km) 완주 메달만 해도 60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마동 담당사제인 오종섭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권유로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게 됐지요. 한여름 밤에 해운대를 출발해서 울산 진해해수욕장까지 해안길로 달려가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달려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가마동 회원들과 한 무리를 이뤄 한

여름 밤 무박 2일로 하는 철야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서로 달리면서 한계 체험에 도전하는 정열의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목주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그러자 3개월 전에 덜컥 대회 신청을 한 나를 옆에서 지켜보며 내내 마음 졸인 아내 실비아와 아이들(안나와 니콜라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더군요.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의 완주를 위해 격려와 기도를 해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목주알을 돌렸습니다. 이래저래 벌여놓은 복잡한 현안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주님께 지해도 청해 보았지요. 하느님 사업 한답시고 교회 일을 맡아하면서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 입힌 봉사자들도 떠오르더군요. 그분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화해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주를 들고 이런저런 지향을 두고 기도하며 달리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에 달리는 거야!”

온몸이 땀에 젖고 허기가 돌 무렵, 가마동 자원봉사팀이 준비한 냉콩국을 단숨에 두 그릇을 들이키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며 마음속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의 세례자로 다시 태어나서 한 분의 주님을 모시지만, 마라톤을 매개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또 하나의 거룩한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렇게 달리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날 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달리셨군요! 그래도 100km 마라톤인데 고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이 그렇게 쏟아지더군요. 비몽사몽간에 달렸습니다. 그때서야 울트라 마라톤 중에 가장 힘든 건 근력이나 지구력 운동이 아니라 바로 '수면과의 싸움'이란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번만 마지막으로 뛰고 다시는 이따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손에 쥘 목주알은 계속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그토록 목주 꾸러미를 많이 돌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느 순간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밤새 달리면서 말로만 들었던 목주기도의 신비체험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려고 했던 신앙의 기쁨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어렵פות이 맛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주기도의 신비한 힘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내가 가톨릭신앙인이라는 게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낮이 나간 상태로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끝인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피니시 라인에 자동 계측음 소리가 “빠~” 하고 들리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환희와 고통과 영광으로 뒤범벅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미를 드렸지요. 앞으로도 달릴 때는 더욱 목주를 열심히 돌리겠다! 그때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귀한 체험을 오래도록 간직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남을 사랑하자”

❖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이 바탕이 돼 있으니 평협 활동이 회장님께 주는 기쁨이 나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파견하실 땐 당신의 지혜와 은사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2008년부터 이기대 성당 본당회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5년간 봉사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크나큰 은총을 받았고, 저의 신앙도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철이 좀 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웃음) 그런데 3년 전에 교구 평협회장이라는 더 큰 소명을 받고서야 “그럼 그렇지!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구나.”라고 깨달았지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라며 뒷걸음질치고 두려워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지요. 저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 부산평협 정기총회 때 인사말 하는 도용희 회장

을 맞은 아내 실비아가 요즘 저에게서 예전에 보지 못한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평협 활동을 통해 군이 얻은 것을 꼽으라면, 우리가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한 ‘주님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도용희 회장과 그의 대화는 장소를 옮겨 저녁식사를 하며 계속됐다. “어떤 의사로 남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도 회장은 “도마스 이비인 후과에 가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위안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 회장은 평신도로서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도 존경받기에 충분한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상경하는 길, 부산평협이 복지 이점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두 복자의 시성을 기원하며 만든 기념품이라며 두 복자의 흉상을 조각한 선물을 도 회장이 건넸다. 오늘도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채 두 손 가득 받고만 말았다. 부산을 떠나오는 길, 오늘 같은 세례명을 가진 우리의 만남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슴속에 품어보았다. 

❖ 평협 활동을 통해 회장님 인생에서 얻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제가 영세할 때, 신앙 모토로 다짐했던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가슴에 새기면서 가훈도 함께 정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훈이기도 한데요. 바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남을 사랑하자.”입니다. 즉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곧 하느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자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이 일천한 제가 결코 쉽지 않은 사랑의 계명을 사는 데는 위 성구가 그나마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 사업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 33주년

평신도가 된다

한국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제단에서 늘 빛나는 빠알간 성체등... 그곳 가까이 감실에 모셔져 있는 성체(주님의 몸)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과 마음속으로 대화하며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체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기회 있는 대로 성체조배를 해야 한다고 하신 교황 바오로 6세는 “지상에서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없으며, 성스러움으로 나아가는 데 이보다 더 큰 효력은 없습니다.”라고 성체조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역설하셨습니다. 성체께 흠숭을 드리는 신심 단체로서, 현시된 성체 앞에서 거룩한 침묵 중에 지속적으로 성체조배를 고리 사슬처럼 이어가는 기도 사도직 단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을 맡아오신 김명관(안셀모, 서울대교구) 회장이 이 사도직 단체를 소개해주셨습니다.

❖ ‘한국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는 어떤 설립 목적으로 태동하게 되었는지요?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는 성체조배를 통해 성체 신심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성체 신심을 많은 신자들에게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0년 4월 성목요일에 전 세계 사제들에게 <성체 신비와 흠숭에 관하여>라는 특별 서한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성체조배를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루치아 마르틴 신부가 24시간 고리를 이어 신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시작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이후 이 운동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교황청 평신도위원회에서는 1991년 6월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를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인 국제 공립 단체로 공식 인준했습니다.



▲ 김명관 안셀모 회장

한국 천주교에서는 메리놀외방선교회의 파렐 (G. Farrell, 백영제 제라르도) 신부님이 1983년 7월



▲ 2016년 전국총회



▲ 2016년 전국총회



▲ 대피정, 회장 인사



▲ 대피정, 염수정 추기경 성체 강복

1일 미국에서 실시하는 본당 중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님이 그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소개하셨고, 이후 각 교구장의 요청으로 전국 각 본당에서 활성화되었지요. 초기 명칭은 '가르멜산 성체회'였어요.

인천교구 부평2동 본당 주임 강성욱(마태오) 신부님이 본당 신자들에게 이를 소개한 뒤, 1984년 5월 13일 첫 입회식을 갖고 5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를 발족시켰고, 6월 1일 파렐 신부님의 교육으로 부평2동 본당 중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교회의로부터 전국 사도직 단체로 공식 인준된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 **각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국에 9개 회원 교구(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 전주, 대전, 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는 산하에 회원 본당을 두고 임원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이 본당 운영에 임하고 있지요. 회원 본당 수는 현재 서울대교구의 45개 본당을 포함하여 219개 본당이고, 전국적으로 2만 84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서 평소에 행하는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많은 신자들이 성체조배를 접할 수 있도록 성체조배 회보 발행, 기도문 배포, 유튜브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성체조배 기초 교재인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를 펴내기도 했고, 작년 11월에는

성체조배 회보 제59호를 5천 부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성체조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매년 성체성혈대축일 다음날(월요일)에는 많은 교구 신자와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성음악 연주, 주교님이 주례하시는 미사, 성체조배, 성체강복, 성체거동, 성체행렬 순으로 진행하고 있죠.

❖ **지금까지 활동해 오시면서 특별하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2000년 10월에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열린 전국 성체 현양대회에 실무 책임을 맡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각 회원 교구에서는 성체 신심 미사와 24시간 밤샘 성체조배로 준비 기도를 해주셨고요. 이 행사를 통해 전국의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 지금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향후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올바른 성체조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노력해야겠지요. 많은 본당이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 청담동 성당 성체조배

❖ **전국의 평신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체조배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 안에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성체조배를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용서를 교회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체조배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조배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을 주님께 청하고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요한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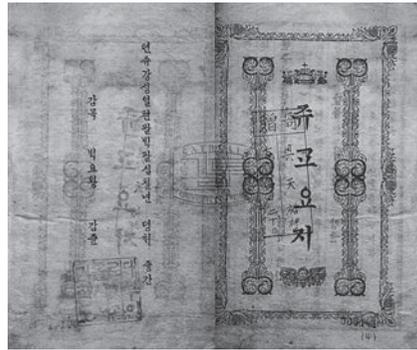
❖ **이 밖에 들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색어 창에 '지속적인'을 치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한국 최초의 천주교 교리서, 정약종의 『주교요지(主教要旨)』



글·정리
이귀련 편집위원

정약종의 생애와 『주교요지』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년)은 조선 정조 때의 학자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셋째 형이다. 그는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여 세운 평신도들의 교리연구 및 전교 단체인 명도회(明道會) 회장으로 천주교회를 위해 맹활약하였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로써 일생을 마쳤다.

성격이 곧고 총명하며 탐구욕이 강했던 정약종은 다른 형제들이 한문서학을 읽고 바로 영세 입교한 것과 달리 뒤늦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정약종의 영세 입교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01년 의금부 심문 과정에서 그는 27세 되던 1786년 3월에 이르러서야 둘째 형인 약전에게 천주교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후 그는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권일신을 대부로 삼았다.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정약종은 한국 최초의 가톨릭 신학자라 할 수 있으며, 명도회 회장으로 전교 활동을 하면서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한글로 된 교리서 『주교요지』를 저술하였다. 이 책의 저술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문모 신부의 인준 시기를 볼 때 그가 명도회 회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순교하기 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약종은 한문을 읽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천주교 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명도회 회장으로서는 더 많은 민중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알려 전교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교리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에 한글을 모르는 주문모 신부의 권유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약종은 천주교의 여러 책들을 인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어 이 책을 아주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게 썼다. 그래서 부녀자뿐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이 책을 펴보기만 하면 천주교 교리를 훤히 알 수 있었고,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데가 없었으며, 교리에 대해 미심쩍어 하던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깨우친 바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교요지』는 최창현이 엮은 『성경직해(聖經直解)』와 함께 초기 조선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한글교리서이며, 유교 중심의 한국사상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책이다.

『주교요지』의 구성과 내용

1) 구성

『주교요지』는 상하 두 편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43과로 구성된다. 각 과마다 제목을 달아놓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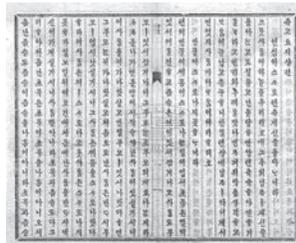
는데, 그 제목만 보아도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이 쓰인 당시의 신앙적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상편 32과 가운데 제1과부터 제14과에서는 천주의 존재 및 천지창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15과부터 제17과에서는 당시 민간신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제18과부터 제26과에서는 당시 민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불교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제27과에서는 잡귀신을 섬기는 미신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제28과부터 제32과에서는 천주교의 천당과 지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편은 제33과에서 제43과까지 모두 11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앞의 아홉 개 과에서는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신구약성경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 과에는 천주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실천하라는 저자의 간곡한 당부를 적어놓았다.

2) 내용

상편: 창조주이신 천주의 존재와 천지창조 / 민간 신앙 / 불교와 잡신 비판 / 천당과 지옥



하편: 천지창조 / 예수의 탄생 / 예수의 신성과 인성 / 예수의 활동과 기적과 죽음의 의미 / 예수의 수난 / 예수의 부활과 승천 / 최후의 심판 / 예수의 탄생과 수난의 의미 / 신자들에 대한 당부

『주교요지』가 한국천주교회에서 갖는 의미

『주교요지』가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책이 한글로 쓰였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저술된 1790년대 대부분의 책들은 한문으로 된 것이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교

리서가 한글로 쓰였다는 것은 『주교요지』가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양반계층 이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주교요지』는 조선 왕조 역사상 민중을 대상으로 쓰인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모든 의인들이 다시 밝은 세상에 태어나리라는 희망을 본다. 이 희망은 양반 지식인이 아닌 민중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였기에 정약종은 이 책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저술했을 것이다. 한 세기에 걸친 모진 박해 속에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순교로써 이 새로운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던 당시 『주교요지』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많은 민중들에게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교요지』는 1932년 활판본으로 개정되기까지 신자들 사이에서 필사되어 널리 읽히며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교리서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조선의 입장에서 서양의 종교를 이해하고 믿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며, 이 믿음을 민중에게 알리고자 한 초기 교회 신자들의 전교활동을 생생히 반영하였다.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해준 『주교요지』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평신도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 『주교요지』는 여전히 살아 있는 유익한 교리서이다. 

참고 문헌

- 정약종과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교리서 『주교요지』 (한국순교자연구소)
- 인물중심의 한국천주교회사 정약종의 『주교요지』 (정두희,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정약종 성조의 『주교요지』 (김레지나, 다음블로그)

나눔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글·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 이벽 요한 세례자

지난해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로,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에 모범입니다. 그들에 관한 자료를 함께 읽어보면서 '평신도 회년'을 맞아 역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바람 타고 문득 날아가 버린 덕조여!

신선 같은 학이 세상에 내려왔나
높고 우뚝한 풍채 절로 드러나네.
나부끼는 흰 날개 새하얀 눈 같아서
닭과 오리들이 시샘하며 골부리네.
울음소리 높은 하늘까지 울려 퍼지고
맑고 밝은 풍진세를 벗어났네.
갈바람 타고 문득 날아가 버려
허전하고 괴로운 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다산 정약용(1762-1836년)이 이벽(1754-1786년)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지은 시이다(『여유당전서』 1집). 이벽의 죽음을 애도한 이가 또 있으니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북학파의 한 사람인 박제가이다. 그는 '가슴속에 기형을 크게 품으니 사해에 그대 홀로 조예 깊었네.'라며 이벽이 고대에 천문

을 관측하는 기구인 기형(機衡), 즉 혼천의의 원리를 잘 알고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 해 간행된 시복 자료집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벽에 대한 자료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요 자료는 『경주이씨 족보』, 황사영 「백서」, 김대건 신부의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 최양업 신부의 「1851년 10월 15일 자 편지」,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 『순조실록』, 안정복의 『순암선생문집』과 「부부고」,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박제가의 『정유각집』, 황윤석의 『이재난고』,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이재기의 『눌암기략』, 이만채의 『벽위편』이다.

『경주이씨 족보』에는 '이벽의 자는 덕조(德操)이고 호는 광암(曠庵)이며 갑술(1754)생으로 을사(1785)년에 32세로 죽었다. 『송례의설』을 지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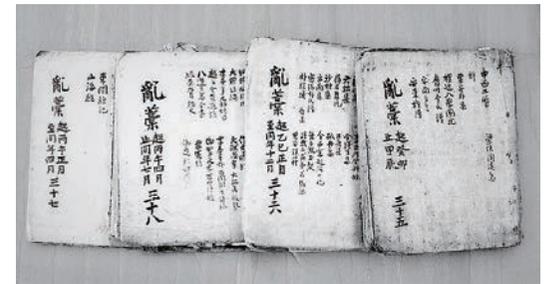
며, 두 번 장가를 갔는데 첫 부인은 안동 권씨이고 두 번째 부인은 해주 정씨이다. 묘는 화현 해좌에 있는데, 3위 합장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79년 4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화현리에 있던 이벽의 무덤을 열었을 때 '공인 안동 권씨의 묘 / 통덕랑 경주 이벽의 묘 / 공인 해주 정씨의 묘'라고 적힌 지석이 발견되었으며, 이때 이벽의 유해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성지로 이장되었다.

이벽이 스스로를 언급한 기록은 자신의 스승인 「정산 이병후 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벽은 삼가 변변찮은 제물을 갖추어 정산 이 선생 영전 아래 곡하며 고하나이다. 옛날 갑오년에 소자가 바야흐로 남으로 내려가 문하에 인사를 드리고 6~7일을 곁에서 머물렀는데, 스승님은 소자의 나이가 어리고 변변치 않은 것에 관계없이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으셨고, 깊이 있는 만남을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올 때는 경계하심이 여러 차례였고, 이별한 뒤에는 세 번이나 편지를 보내주셨으니 대개 스승님의 소자 사랑이 얕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자 역시 그 뜻을 받들고, 마음 깊이 감격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문에서 이벽은 변변치 않은 제자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경계의 말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스승에 대한 절절함을 드러냈다. 자신은 변변치 않다고 스스로 겸손했으나, 스승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았고 아끼워했으며, 시대사조를 거슬러 가는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걱정했으리라. 이벽은 이 제문을 쓰고 10년 뒤에 스승을 따라갔다.

북학파 학자들이 남긴 기록들

당대의 지식인들은 과연 이벽을 어떻게 보았을까. 후대의 평가 못지않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실학자 가운데 특히 북학파 학자들이 남긴 기록은 이벽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눈여겨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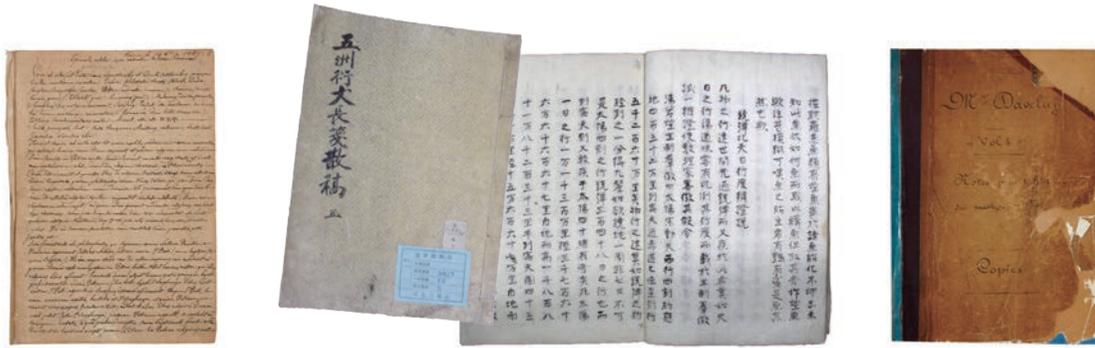


▲ 『이재난고』

한 자료이다. '요사이 서울 안에 서학과 수리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자로 ... 이벽이 있는데 바로 무인 이벽의 동생입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며 사람됨이 고결한데, 지금 저동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1741-1793년)의 이 글은 조선 후기 학자 황윤석(1729-1791년)이 지은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총 50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과 다루어진 주제들의 다양함 때문에 한국 저술사에서도 손꼽힌다.

여기에는 또 전설벌검 나동선의 평가도 실려 있다. 그의 평가는 좀 더 사실적이고 흥미롭다. 황윤석이 나동선에게 "지금 도성 사람들 중에서 또한 총명하고 특별히 뛰어난 선비가 있느냐?"고 묻자, "이벽이란 사람이 있는데 ... 어려운 글 열 줄을 한눈으로 내려 보면서 비호같이 해석하며, 눈 하나는 위를 보고 다른 하나로는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누구보다 뛰어나 한 번에 3회전을 할 수 있으며, 두 길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평소 서양의 『천주실의』를 몹시 좋아하여 한때 그 무리의 으뜸이 되었는데, 요절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도 이벽의 행적을 간단하게 언급했다. 그의 대표 저서로 역사, 문학, 천문, 종교, 농업, 의학 등 1,400가지의 항목을 다룬 백과사전 『오주연문장전산고(洲衍文長箋散稿)』에도 이벽에 대한 기록이 있다.



▲ 김대건 신부의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 ▲ 『오주연문장전산고』 ▲ 다블뤼 비망기 제4권

이벽, 가장 먼저 하느님을 이해한 사람

김대건 신부는 1845년 3~4월에 쓴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벽에 대해 언급하였다. “가장 먼저 하느님을 이해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이벽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후에 요한 세례자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큰 학자로서 하느님의 교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경에서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종교, 즉 천주교가 성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 천주교 서적들을 가져오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 동지사 사절단이 북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사절단의 3인자인 서장관의 아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벽을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다블뤼 주교도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이벽의 기록을 여러 차례 그리고 감동적으로 남겼다. “북경으로의 자네의 여행은 하늘이 참 교리를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준 하나의 놀라운 기회일세. … 이 교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 마차에 내리면 즉시 천주당으로 가서 서양 학자들과 상의하고 모든 것을 문의하고, 그들과 교리를 깊이 규명하고 천주교의 모든 실천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하고, 필요한 책들을 모두 갖고 오게. 생사의 큰 문제와 영원의 큰 문제가 자네 수중에 있네. 가계.”

이벽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받아온 책들을 공부하고 즉시 전교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많은 이들이 이벽의 확신에 차고 예리한 논리에 감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이 일어나고 유림들이 천주교를 맹렬하게 공격하자 이벽의 아버지는 이벽에게 배교를 강요했다. 심지어 이벽이 천주교를 버리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목을 매기까지 했다. 이벽은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보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블뤼 주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떻게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게 버려둘 수 있는가? … 1786년 그는 유행하던 페스트에 걸렸다. 그에게 쏟은 아낌없는 간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33세의 나이에 죽었다.”

진리의 빛은 언제나 그것을 찾는 사람의 눈에 띄기 마련이고, 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라면 진리가 주는 감동에 무감각하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최후의 순간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그저 교우들이 그에게 통회를 권하고 천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곁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믿는다.”는 다블뤼 주교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혹여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으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안에 쓰셨던 이벽의 영혼을 당신 품 안으로 불러 안으셨을 것이다. 卍

나눔

나의 신앙 선조
부모님, 내 신앙과 성소의 은인



손희송 베네딕토 /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고향과 부모님

나는 조상 대대로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이른바 구교우 집안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유아세례를 받았다. 조상님들 중에는 한국천주교회 초기의 순교자도 계셨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내 고향은 경기도 북쪽의 작은 마을 연천이다. 본래 우리 가족은 현재 원주교구 풍수원 본당 관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았다. 우리 가족은 1956년 경기도 연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거기서 내가 태어난 것이다. 연천은 38선 이북에 위치했기 때문에 1945년 해방 당시에는 이북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속하게 된, 이른바 수복(收復) 지역이다.

내가 태어날 당시에 연천에는 본당은 물론 공소조차 없었다. 부모님은 연천으로 이사 온 직후에 서둘러서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본당인 의정부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신부님의 방문을 청하셨다. 그래서 연천 공소가 시작되었고, 아버님이 초대 공소 회장으로 임명을 받아 1970년 작고하실 때까지 회장 직무를 맡으셨다.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공소 회장직을 물려받으셨다. 1971년 9월에 연천 공소에 강당을

지었는데, 그때까지 주일에 신부님이 오시면 우리 집 안방에서 미사를 드리고는 하였다.

부모님은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어머니는 야학에서 한글을 배워 깨우치셨다. 두 분 다 구교 집안 출신으로서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에는 철저하셨다. 자식들의 학교 공부보다는 신앙 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신 분들이었다. 늘 ‘착하게 살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기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내가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였을 때 공부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이런 부모님 덕분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성소의 씨앗

내 고향 연천은 교육 환경으로 보면 그리 이상적인 곳은 아니었다. 휴전선이 가까운 전방지역이라 주변에는 군부대가 많았고 술집과 다방도 많았다. 성당도 없고 신자들도 매우 적었던 그곳에서 내가 사제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부모님 덕분이다.

우리 집이 공소였고 부모님은 신부님을 무척



이나 공경하던 분들이라서 이런저런 계기로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신부님들을 보면서 자라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부모님은 내게 ‘신부가 되라.’고 부드럽게 권고하고는 했다. 또 집에 들르시는 신부님들로부터도 ‘너 이다음에 커서 신학교 가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는 했다. 아마도 이런 은근하고 지속적인 권고가 사제성소의 씨앗이 된 것 같다.

한번은 어머니가 ‘우리같이 변변치 못한 집에서 어떻게 사제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시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 “그런 소리 말아. 지금 교황님도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나오셨어.” 당시 교황은 1958년에 선출된 요한 23세로서 이탈리아 북부의 가난한 농부 집안 출신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권유와 기도, 우리 집에 들르셨던 여러 신부님들의 권고 덕분에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사제직에 대한 원의가 싹트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고, 이 결심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나는 아예 신부가 될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였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소신학교(성신중학교)에 입학하기로 계획

을 세웠다. 하지만 1968년에 갑자기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고 추천제로 바뀌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신학교의 중학교 과정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는 고향 마을에서 다녀야 했다.

연천은 작은 마을이라서 중학교도 한 학년에 4학급밖에 없었다. 1, 2반은 남자 반, 3반은 남녀 합반, 4반은 여자 반으로 구성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3학년 내내 남자들만 있는 1반이나 2반에 속하여 있었다. 중학교 때에도 신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마음은 변화가 없었다. 같은 반의 동료들도 내가 신부가 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네가 신부 되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사 주겠다.’고 장난스럽게 내기를 거는 친구도 있었다.

한창 사춘기 때인 만큼 여학생들에게 끌리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한 방어기제가 발동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신부가 되려고 하고, 신부는 일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니까 지금부터는 여자들과 가능한 한 상대를 하지 말자.’는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여학생들과는 만나거나 얘기하는 것을 일부러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꽤나 진지했다.

작은 위기

중학교 3년을 마치고 드디어 서울에 있는 소신학교(성신고등학교, 1983년 폐교됨)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위기가 있었다. 사제가 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신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신부가 돼야지 나오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만 걸림돌이 되었다. 남자가 한 번 품은 뜻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야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말씀이었는데, 당시 사춘기에 있던 나에게 묘한 반항 심리가 발동을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신부가 되고

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누가 아느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부담이 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대꾸를 했다. 단순한 분이신 어머니는 ‘그러면 네게는 성소가 없나 보다. 그런 정도의 약한 마음이라면 아예 그만두라.’고 잘라 말씀하셨다. 두말없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얼마 동안은 그곳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어머니께서는 큰형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큰형이 중재에 나섰다. 어느 날 형이 나를 부르더니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 터이니 원하는 대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고 했다. 다행히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1972년 봄에 소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소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이후에도 성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갈등은 거의 없었다. 성소의 길이 너무 순탄하고 자연스럽게까지 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한때는 ‘내 성소의 길은 너무 밋밋해서 얘기할 것이 없네. 뭔가 좀 극적인 것이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불만 비슷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어린 나이에 성소에 대한 큰 회의나 심한 갈등이 있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칫하면 성소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소의 씨앗을 심어주신 부모님과 그 씨앗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릴 뿐이다.

수호천사

1992년 10월에 10년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신부된 지 6년 만에 본당 주임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서품 받고서도 계속 유학생생활을 하는 통에 보좌연한이 다 지나서 곧바로 본당 주임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주임이 된 것은 좋지만, 본당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임이 되니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았다. 게다가 본당 발령 받은 지 6개월 정도 지나서 대신학교에 출강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어머니가 사제관에 계시면서 살림을 도와주셨는데, 본당의 사목 업무와 신학교 강의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아들 신부를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어느 날 본당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주일 오전에 우연히 사제관을 지나가다가 사제관 집무실의 창문이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데, 의자 등받이 위로 뒷머리만 보이더라는 것이다. 마침 그 시간이 교중 미사 시간이어서 주임신부는 미사 집전 중인데, 웬 낯선 사람이 주임신부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 수녀님이 나중에 어머니에게 왜 그 시간에 아들 집무실에 들어가 계셨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다. “아들 신부가 주일이라 바빠서 묵주기도 못 할 것 같아 아들 의자에 앉아서 대신 묵주신공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문득 “아, 어머니가 내게는 수호천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사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성직자로서 기쁘게 살아왔다고 확신한다. 어머니는 2014년 9월에 96세의 연세로 선종하시기 전까지 자식들, 특별히 사제인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묵주를 주셨다. 아마도 당신 죽음을 예감하셨던 것 같다. 어머니가 주신 묵주로 기도할 때면 그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느낌이 든다. 내 신앙의 교사요 성소의 인도자이신 어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제들을 위해 하느님께 열렬히 전구해 주신다고 믿고 있다.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 (4)

한번 우르바노 신학생은 영원한 선교사

박정일 미카엘 /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주교



필자 박정일 주교

로마에서는 10월 초순에 대학 강의가 시작된다. 우리 3인 - 허인 바오로(부산교구), 김영환 베네딕토(대구대교구), 나(평양교구) - 은 8월 17일 로마에 도착하여 약 2개월 동안의 방학을 로마에서 약 23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에 있는 신학교 별장에서 한가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이탈리아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당시 우르바노 신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자기 집으로 가서 방학을 지내거나 여행을 떠날 수 없고, 학교 수업만 없을 뿐 신학교 별장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나는 우르바노 신학대학 철학과 1학년에 등록하였다. 영도 피난 신학교(6·25 당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서울 신학교가 임시로 제주도에 5개월, 부산시 영도에서 2년 동안 피난한 적이 있다.)에서 1년 동안 한국어로 철학 공부를 했지만, 한국에서 라틴어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강의를 라틴어로 이루어졌다.) 신학교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1학년에 등록하였던 것이다.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처지에 어려운 철학 강의를 라틴어로 들어야 하니 참으로 어려웠다. 학기 초에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다. 다행히 교수님들의 교본이 있어서 방과 후 사전을 찾아가며 열심이 읽었다. 그러나 그것도 어

려웠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 데도 한 시간이상이 걸렸던 것 같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귀가 열리고, 학년말이 되었을 때에는 겨우 낙제를 면하고 2학년에 진급할 수 있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논문 외에는 모든 시험이 구두시험이었으며, 라틴어로 교수와 즉문즉답하는 형식이었다. 아마도 교수님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나는 늦게 신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동창생들보다 대개 서너 살 연상이었다.) 동양 학생을 너그럽게 봐주신 덕분이었으리라. 우르바노 신학대학에서는 철학과 2년을 마치고 바로 신학과로 진학할 수도 있었고, 3학년을 이수함으로써 철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 스페인광장 포교성성과 신학교 교사 건물 (원주 뒤)



▲ 광장 옆 언덕 위 성삼 성당



▲ 우르바노 신학교 간판

이왕 늦은 공부에 라틴어도 좀 더 익힐 겸 철학 3학년을 이수하여 철학 석사학위를 받고 신학과에 진학하였다. 신학 과정은 4년이다. 신학 석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었다. 신학과에 진학하여 사제가 되기까지(1958년 11월 23일 사제 수품) 나의 신학교 생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건강도 양호한 편이었다.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 우르바노 8세 교황

우르바노 신학교는 어떤 교구나 수도회가 설립하는 신학교와는 달리, 전 세계 전교지방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1623년 교황청 포교성성(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장관이던 우르바노

8세(1623-1644년) 교황께서 설립한 특수 신학교이다. 그래서 신학교 이름이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우르바노 신학교'이고, 학교 소재지도 '로마시 우르바노 8세로 16번'으로 되어 있다. 우르바노 신학교는 약 400년의 긴 역사뿐 아니라, 전교지방의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관례로 나름대로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 한 두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 첫째 특성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이다.

당시 아시아·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전교지방 약 20개국 학생들이 있었다. 흑인종·황인종·백인종(예외적으로 두세 명밖에 없었다.) 등... 가히 인류 전람회라고나 할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유럽 학생들은 없었다. 가톨릭 국가인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학생들도 없었다. 그들 나라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 신학교를 로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구 신학교는 자기 교구 소속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수도회 신학교는 자기 수도회 소속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하는 신학교이다.)

신학교 생활 처음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 특히 흑인들이나 일본(가깝고도 먼 나라) 신학생들과 함께 숙식하고 생활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자연스러워졌고, 더구나 여러 나라의 풍속과 사정 등도 알게 되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더욱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고, 같은 사제직의 이상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르바노 신학교의 특수한 제도 하나가 있는데, - 나의 과문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 아마 일반 교구나 수도회 신학교에는 없는 제도인 카메라타(Camerata) 제도이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데 꼭 필요한 특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Camerata'라는 말은 'Camera'(이탈리아어로 방, 또는 실(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동지,

급우, 동창, 또는 서클'이라는 뜻이다. 전교생이 각각 다른 카메라타에 배정되는데, 당시에 11개 카메라타가 있었다. 각 카메라타에 약 20명이 배정되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약 200명이었다.



▲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을 산책하는 학생들

카메라타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 외에는 항상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였다. 각자의 방(독방)이 한 건물의 같은 구역에 있었고, 식사 때는

물론 휴식시간과 운동시간에도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였다. 다른 카메라타나 같은 나라 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공용어는 물론 이탈리아어이다. 이는 매우 엄한 규칙이었다. 그러나 주일과 목요일 오후 휴식시간만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같은 나라 학생들과도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런 날이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운동장가에 있는 한곳에 모여 외국 생활의 회포를 푸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고국 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지금도 그 장소가 눈앞에 선하고 그립다.

우르바노 신학교에는 또한 나름대로의 영적 전통과 특색이 있다. 그 첫째가 철저한 복음 선포 의식이다. 장상들은 학생들에게 복음화 정신을 일깨우는 데 온 노력을 다 쏟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번 우르바노 신학생은 영원한 선교사!'(Una volta Propagandista sempre Propagandista / Once Propagandist always Propagandist)라는 표어를 자랑스럽게 외치곤 하였다. 세상 복음화를 위해 직접 포교성성이 세운 신학교에 마땅히 있음직한 전통이라고 할까.

우르바노 신학교에 각별한 성모 신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비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다. 신학교 대성당 안 소성당에 '자비의 성모상' 성

화가 모셔져 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성당을 드나들 때마다 그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바치곤 하였다. 그 성모님의 이름을 딴 '자비의 성모님 신심회'(Unione di Mater Misericordiae)가 있었고, 내 방에는 항상 그 성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다른 하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무염시태 성모님, 12월 8일 축일)에 대한 신심이다. 이 신심은 각자의 개인 기도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르바노 신학교의 전통으로 특수한 것은 카메라타 학생들이 함께 행동을 시작할 때나 모일 때마다 이 성모님께 화살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원주 위에 모신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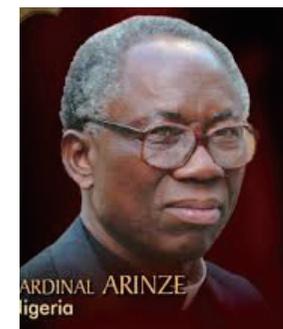
조장이 "Virgine Immacolata aiuteteci!(원죄 없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선창하면,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복창하고 행동을 시작하곤 하였다. 이 전통은 스페인 광장에 있는 원주 위에 모셔진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의 표시가 그 기원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 스페인 광장은 로마에 있는 여러 유명한 광장 중의 하나이며, 본래 스페인 대사관이 옆에 있어서 명명된 광장이다. 광장 옆에 옛 교황청 포교성성과 우르바노 신학교가 현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 자리하고 있었다. 광장 북쪽에 우뚝 솟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모신 거대한 원주가 있는데, 1854년 비오 9세 교황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반포하신 것을 기념하여 1857년 12월 8일 건립한 것이다. 광장 옆에 유명한 '언덕 위의 성상 성당'이 있으며, 오늘날 이 광장은 로마의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1952년 당시 로마에는 한국 사람이 사제 3명, 신학생 5명, 남자 유학생 1명으로 10명이 안 되었

고, 한국 대사관도 없었다. 그래서 가끔 로마에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한국에서 회의 참석차 오는 분이 있을 때면 호텔 알선이나 시내 관광 등은 으레 우리 신학생들의 몫이었다. (당시 신익희 국회의장이 한 번 오셨던 것이 기억나고, 다른 몇 분도 다녀갔다.) 약 2년 후인 1954년에 비로소 한국 영사관이 개설되어 광복절에는 신학생들도 영사관에 초대되었다. 8·15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한국 소식을 듣기도 하고, 특히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날은 로마에 한국 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 음식점이 하나도 없었다.

당시 로마에 사제로서는 예수회 신부 한 분과 서울교구 신부 두 분(이문근 신부님과 다른 한 분)이 있을 뿐이었다. 한국 성음악의 대가이신 이문근 신부님은 성 체칠리아 음악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신학생들 중에는 동방 가톨릭교회인 이집트, 그리스, 레바논, 터키 교회 등에 속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동방교회 예절은 미사와 7성사 등 서방교회 예절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예절만 다를 뿐, 교황님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가톨릭교회이다. 가끔 동방교회 예식의 손님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오시면 이색적인 동방예식 미사에 참여할 때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이었다. 특히 '주님 공현 대축일'(옛 삼왕 내조 축일.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간 고사를 기념하는 축일)이 되면 우르바노 신학교에서는 대대적으로 동방예식으로 미사가 올려져 이색적이었다.



▲ 아린제 추기경

동방교회에 속하는 동기 이집트 학생 중

하나가 주교로 임명되었는데, 몇 해 전에 내가 이집트를 방문하는 기회에 만나서 매우 반가웠다.

나의 동기(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42명) 중에는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5~6명 된다. 그 중 한 사람이 추기경(나이지리아인 아린제)으로 임명되었는데, 2002년 9월 인류복음화성(옛 포교성성) '종교간 대화 평의회' 의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동기들은 대륙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한 번도 동창회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나본 적이 없어 아쉽다. 더구나 생사의 소식도 잘 알 수 없으니... 다만 가까운 일본의 나가사키 대교구장이었던 시마모토 대주교는 내가 제주교구장으로 있을 때 방문해 주었고, 나도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 가지.....

1950년대에 유럽에 유학하시는 신부님들의 경제적 여건이, 잘 모르겠지만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 오늘날은 장학금을 받거나 교구에서 뒷받침하므로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문근 신부님께서도 생활비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다. 신부님은 이발비를 아끼기 위해 이발기를 사서 당신이 앞뒤로 거울을 놓고 손수 이발을 하셨다. 가끔 이 신부님께서 여름 방학 때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소풍가는 기회에 이발기를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미카엘 이발 좀 해 줘.'라고 하셔서 이발을 해드린 기억이,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부님께서 양복바지를 직접 만들어 입기도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신부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가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실 때는 으레 군밤(당시에는 로마 길가에 군밤 장사가 있었다.)을 사 가지고 오신 정겨운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김정일 티모테오 / 대구대교구 평단협 부회장



▲ MBW 기를 들고 있는 김정일 티모테오

본당에서 교리교사로 봉사하던 젊은 시절 저는 이렇게 반문하곤 하였습니다. 평협의 간부들 중에는 주일학교 출신이나 대학생회, 청년회, 교리교사 출신이 왜 많지 않은가? 반대로 학창시절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들은 어른이 되면 왜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꺼려하는가?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학창시절을 성당에서 살다시피 한 후, 재경대학생회와 군생활을 마치고 본당에서 교리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꾸르실료

수강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방한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5월 5일 '청소년 대회'를 통한 서품식을 집전하시기 위하여 대구에 내려 오셨습니다. 당시 교리교사연합회장이던 저는 우리 교구의 평신도대표단의 일원으로 교황님을 알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친구(親口)를 마친 저에게 학생인지를 물어 보시며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주셨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저는 봉사활동이나 교회활동을 제안 받으면 그때를 떠올리며 가능한 한 더욱더 순명하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티모테오 너는 신부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교육국 직원이던 어느 날 신학교 입학을 고민하던 저에게 당시 교육국장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 신부님의 말씀이 예언이었던지 제가 그렇게 노력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다양한 평신도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교황 방한을 계기로 시작한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스카우트 운동'에는 대지도



▲ 마르코니회

자를 시작으로 단위대 육성단체대표, 지구연합회 훈육위원장 및 부회장으로 봉사하는 한편, 지도자 훈련교수 자격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 육성하며 현재까지 35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역시 봉사직인 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선통신을 통한 복음화 운동을 취지로 1994년에 재창립한 '가톨릭아마추어무선사회'(마르코니회) 활동으로는 그간 순교자현양대회 등 각종 대회의 무선통신지원, 이동 무선국 운용, 아이볼미팅 및 지난주 965차 교신이 이루어진 매주 월요일 저녁의 정기라운드교신 등을 통하여 복음 및 생활 나누기 등에 25년 동안 씁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앞둔 어느 해 겨울, 본당의 추천을 받아 며칠간의 일정으로 왜관 피정의집에서 개최된 생소한 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사목현장, 평신도교령 등에 대하여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까마득히 잊고 살던 1990년 어느날, 청소년복음화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976년 그때의 왜관 피정의집 수련회



▲ MBW 40주년

가 우리 교구에 처음으로 도입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M.B.W. 운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교구장 승인을 받아 가입된 단체들 대부분이 액션 단체에 속하였는데, M.B.W. 운동은 신심단체에 속하였습니다. 저에게 소명처럼 다가온 이 운동에의 참여는 사실상 저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며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평신도 사도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3박 4일 과정이었지만, 좀 더 많은 수련회 참여를 위하여 숙박과정이 아닌 희망 본당으로 찾아가는 목, 금, 토, 일 주말과정 위주가 되었는데, 많은 경우 연간 52주중 30여 차례의 수련회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제가 속한 본당에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점점 힘들어졌으며, 이는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M.B.W. 공동체 추진 봉사회'를 통한 사도직 참여는 어느덧 29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공동체 정신은 제가 교구청 교육국 직원으로 시작하여 재단 내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정년퇴임하기까지 교회 내에 머물게 하였으며, 매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1장에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 활동으로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한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개막하여 1965년에 폐막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교회는 소수의 성직자가 절대 다수의 사목 대상자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피라미드 형태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제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는 신부님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되며,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당 사목은 계획부터 운영과 평가까지 모든 것들을 신부님들이 다 책임지고, 평신도인 우리는 소극적으로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나 하면 신자들의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의 교회는 '교인들의 회중' 즉 하느님 백성으로 정의되며,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는 교회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신도'라는 용어와 평신도교령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교회 사명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를 공식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신부님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이 일을 하십니까? 정말 오래 하시네요.”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알현



▲ 가톨릭스카우트

이 말들은 제가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해오면서 자주 들어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평신도로서의 꿈과 희망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 즉 교구나 본당 평협, 소속제 단체, 구역 및 반모임 등에서 적극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야기

주보성인과 나 알렉산데르

문덕영 알렉산데르 / 전 제주교구 평협회장



나는 1967년 12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알렉산더'라는 세례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당시 세례 자격시험(?)인 찰고를 받던 날, 교리실에는 수십 명의 예비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요리문답 책을 뒤적이며 잇을세라 외우고 또 외우며 있었다.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되자 뻗뻗해진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신부님과 마주 앉았다. 출석부를 쪽보시더니 “개근이네.” 하시며 나를 보시고는 입교하게 된 동기를 물으신 것이 전부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리를 열심히 수강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를 기특하게 여기신 신부님께서 “열심히 했으니 물어보지 않겠다.” 하시며 합격 도장을 찍어 주셨다. 너무나 빨리 나온 나를 본 예비자분들이 “뭘 물어보셨냐?”, “통과했느냐?” 등을 물었다. 난 “떨어졌어요.” 하고 씩 웃자 알아차리고는 다들 축하해주셨다.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영세 받는 12월 18일은 겨울 같지 않게 따뜻한 날이었다. 새날을 축하하러 사대부고 썰 회원들과 친척 여동생 소피아가 왔다. 날 에워싼 아이들이 “대왕님! 대왕님!” 하면서 밝게 축하해주었다. 그랬다. 나는 그 착한 애들에게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이었다.

영세받기 전의 일이었다. 대학 4학년이던 1966년 4월 어느 날, 당시 을지로5가에 있던 사대부고 2학년인 친척 누이동생이 나를 찾아왔다. 여

름방학에 학교 썰 모임에서 여름 농촌봉사활동을 가는데, 인솔 선생님이 못 가지게 되어 회원들이 실망이 너무 크니 나보고 인솔자로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당시 난 장충동 경동교회에 다니던 때라 난처했다.

회원들에게는 내가 자기의 오빠이며, 교우이고 세례명은 알렉산더라고 이미 설명을 했었다. 본명은 내 생일이 5월 30일이라 5월에서 찾다보니 5월 3일 성인 가운데 알렉산더 성인이 멋있어서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나는 위장 천주교 신자가 되어 서해 끝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볼음도(인천 강화군 서도면)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다. 총인원 15명. 남학생 8명, 여학생 6명 그리고 나.

출발하면서부터 난 내 이름보다 ‘알렉산더 대왕님’으로 불리며 어색한 공동체생활을 시작하였다. 식사 전 기도, 주의 기도, 성모송, 성가 등등 너무나 달라서 신자 아닌 게 탄로 날까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매일 매일 아이들과 피약벌 아래서 땀 흘리며 땅콩 수확도 하고, 밭에 김도 메고, 농로도 손질하였다. 비라도 많이 내리는 날이면 옷이 흠뻑 젖은 채 물길 트는 작업도 하느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힘든 나날이었다.

저녁밥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고 나면 바닷가 언덕에 앉아 멀리 황해도 해주 쪽 북녘 땅, 띄엄띄엄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처음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가끔 그쪽에서 비치는 아주 강한 서치라이트가 휘익 밤하늘을 휘젓다 바로 우리를 향해 비추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섬 어른들이 우리를 겁주려고 일부러 “불빛이 비추면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기서 다 보

고 있다.”고 하는 통에 풀밭에 납작 엎드려 숨죽여 떨던 생각이 난다. 어색한 천주교 신자로 시간이 흐르다보니 자연스레 탄로가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출발 전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고, 호칭도 신자가 아니니 알렉산더 대왕님이라 부르기로 했단다.

그 당시는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될 것이라고는 나는 물론 정이 듬뿍 들어버린 그 아이들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세례 받는 날 그렇게 좋아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준 것이리라. 그때 그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엄마가 되어 있겠지?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겠구나. 아무리 떠올려 하어도 떠오르지 않는 모습들이지만,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50여 년을 거슬러 과거 여행을 하다 다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생각해 보니 그때 아이들과의 농촌봉사활동은 내가 중학교 3학년부터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 일을 하리라던 나의 꿈이 흔들리지 않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농업 관련 연구생활 33년을 하는데 커다란 촉매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쩡하고 눈이 촉촉해진다.

나의 수호성인 성 알렉산데르 1세(Alexander I)는 제6대 교황(105-115년)이었다. 성인에 대하여 전해

지는 자료가 많지 않아 몹시 아쉽지만, 로마 순교록에 의하면 성인께서는 족쇄를 차고 감옥에 갇혔으며, 살을 불로 태우는 고문을 받으시다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셨다. 또한 <교황 연대표>에 따르면 성인께서는 미사경본의 성찬기도 제1양식 축성직전 기도인 “Qui pridie”(예수께서는 수난 전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를 삽입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구마나 정화의 목적으로 성수를 뿌리는 전통과 성찬례 때 물과 포도주를 섞는 전통을 도입하셨다고 한다. 이처럼 성인께서는 교회의 전례 및 행정의 초기 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며, 아기 예수의 환시를 체험하신 것으로도 기록되고 있다. 나의 수호성인 성 알렉산데르의 축일은 5월 3일이다.

맨 살이 태워지는 지극한 아픔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으로 증거하신, 나를 지켜주시는 성인 알렉산데르, 나의 수호성인이시여! 죽음으로 예수 사랑을 증거하신 당신을 제가 닮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주님과 당신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의 삶속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아주 작은 이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게으르고 용기 없음을 당신은 알고 계시니 살아가는 동안 적극적이고 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저를 끌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하느님과 당신의 도우심으로 만나 뵈게 되는 날,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해의 작은 섬 볼음도에서 함께 지내며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었던, 보고 싶은 그때 그 친구들이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간구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청하기만 합니다.

찬미와 감사, 그리고 사랑합니다.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리옹미술관에서 만난 <여인의 얼굴 '메듀사', 빛과 그림자>



박혜원 소피아 /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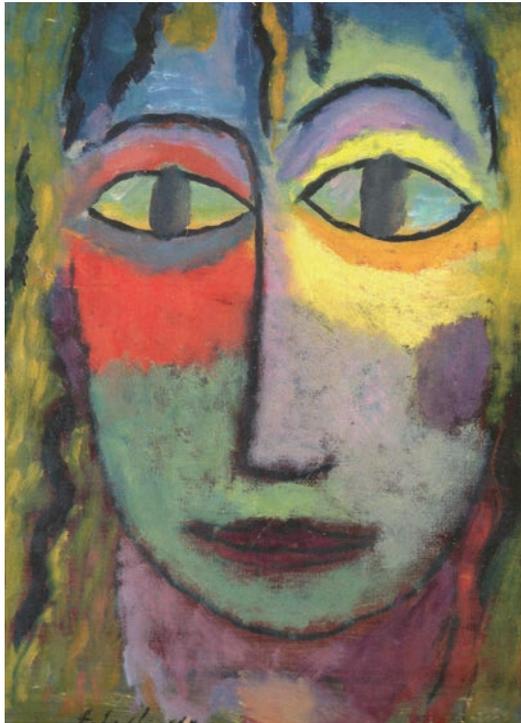
작년 11월 초 늦가을의 정취가 한창일 무렵, 저는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산업도시 리옹(Lyon)에 4일간 머물렀습니다. 유럽 벨기에, 프랑스 문화권에서 성장한 저에게 프랑스는 매우 친숙한 나라지만, 어찌 미루다 보니 이번이 리옹의 첫 방문이었습니다. 15세기에 시작된 직물산업(비단)의 중심지이자 폴 보퀴즈(Paul Bocuse)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요리사의 본고장 등 경제와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한 도시 리옹의 발견은 이번 프랑스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정신문화적으로 풍족해시킬까요? 리옹 시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과 마주치면서 길을 묻고 귀찮게 하며 질문을 쏟아내는 동양 관광객에게 조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나같이 밝은 미소로 친절히 대해준 리옹 시민의 모습은 아름다운 도시 리옹의 매력보다도 더욱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같이 리옹 시민의 밝은 에너지를 듬뿍 받은 나의 리옹 체류는 유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옹 시 중심부에는 서울 남산과 같이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정상에는 성모에게 봉헌된 성당

인 ‘푸르비에르 성당’(Basilique de Fourvière)이 우뚝 서있습니다. 성모의 보호와 축복 아래 언덕 양편으로 손(La Saône)과 론강(Le Rhône)이 흐르고 있어 리옹 시의 고풍스러운 운치와 매력을 더해줍니다. 리옹은 다양한 미술관, 인형극 극장, 맛있는 레스토랑 등 다채로운 ‘프랑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그중 매우 인상 깊었던 리옹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de Lyo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대이집트 유물에서 중세 및 20세기에 이르는 방대하고 아름다운 컬렉션을 자랑하는 이 미술관이 특히 놀라웠던 점은 바로 그 건축물이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된 기품 넘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치형의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정원 중앙에 분수대가 나타나고, 그 뒤로 미술관 입구가 등장합니다. 직사각형의 안뜰은 푸른 잔디와 나무, 그리고 조각상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고, 여기저기 놓여있는 벤치는 일상에 지친 시민 모두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라고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가을 풍경을 만끽했을



▲ 〈여인의 얼굴 '메두사', 빛과 그림자〉
1923년, 알렉세이 폰 야우렌스키(Alexei von Jawlensky,
1864-1941), 마분지에 유채, 42 x 31cm, 리옹미술관, 프랑스

텐데...” 하는 즐거운 상상을 멈추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관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미술관의 역사를 읽어본 후에야 이 미술관이 특별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17세기에 세워진 프랑스 왕립 성 베드로 수녀원(Abbaye Royale des Dames de Saint-Pierre)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인 이 수녀원은 프랑스 왕족 및 귀족 여성들이 주로 머물렀던 수녀원으로 사용되었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굶주림에 시달리던 시민들에 의해 종교인과 귀족의 재산이 몰수되고 국가 소유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3년 이 수녀원 건물은 시민을 위한 '미술관'으로 개조되어 모두를 위해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같이 프랑스에서 미술관은 벌써 18세기 말

에 탄생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를 일컬어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삶 속에 '예술'이 들어온 역사가 이렇게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예술이 소수의 지식층 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슬픈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한 것은 짧은 역사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미술관에서 놀란 점은 우아미가 돋보이는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수한 컬렉션과 훌륭한 작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등 모두가 경탄스러웠습니다. 제가 반나절 이 미술관에 머무는 동안 관람객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는 시민 다수가 즐겨 찾는 매우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 수녀원 건물의 특징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전시실은 매우 훌륭한 조각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높은 천장의 아름다운 공간은 바로 수녀원 소속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미술관의 수많은 걸작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들자면, 1923년 그려진 〈여인의 얼굴 '메두사', 빛과 그림자〉라는 다소 난해하고 추상적인 제목의 작품을 손꼽고 싶습니다. 1917년 러시아 붉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고통스러워한 화가 야블렌스키는 일찍이 자유를 찾아 서유럽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작품 제목을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인 '메두사'이자 '빛과 그림자'라고 명명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예술철학, 즉 빛과 그림자, 선과 악 등의 절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야수파(Fauvisme)를 연상시키는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와 형태로 표현된 이 그림은 마치 화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은은히 뿜어 나

오는 빛, 즉 신비롭고 종교적인 기운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야수파적인 특징이 두드러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그의 정신문화적 뿌리인 러시아의 '이콘(Icon)'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야블렌스키가 고안해낸 '20세기형 현대 이콘'인 것입니다. 오색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살아있는 얼굴, '천상과 지상계'의 '빛과 그림자'의 신비를 반영하는 신성한 얼굴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표현된 예술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바로 예술을 일컬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리옹미술관 방문은 저의 21세기형 미술관에 대한 생각을 더욱 굳혀주는 멋진 표본을 제시해줌과 동시에 결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아직 다수의 한국시민이 느끼는 '미술관'에 대한 인식은 그 문턱이 너무 높고 멀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를 향유'하는 정서적 여유의 부

족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낮고 열린 자세로 문턱을 낮춘 열린 공간'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열린 소통의 공간'인 미술관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제공해줌으로써 진정한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리옹의 수녀원 건물이 멋진 미술관으로 태어났듯이, 명동의 계성여고와 같이 고유의 역사성을 가진 건축물이 미술관으로 탄생한다면, 그 역사적 가치가 배가됨은 물론 진정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돈'이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가 되어 버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진정한 내어주는 모습의 본모기를 보여준다면, 이보다 더 값진 하느님 사랑의 실천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 리옹미술관 안뜰이자 입구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손 내미는 사랑

이재민 지음 / 생활성서사 / 140×200 / 280쪽 / 15,000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명이기도 한 사제직의 삶을 온전히 밝히는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부님들만을 '사제'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게만 '사제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 이재민 신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직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단언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잃고 영성생활에 활력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고 '평신도'이기에 한계를 느꼈던 이들에게 자신이 찾은 참사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여준다.



부스러기 모아 열두 광주리

이인옥 지음 / 으뜸사랑 / 145×210 / 200쪽 / 10,000원

수원가톨릭대학에서 성경 교재를 연구하는 저자가 가톨릭신문, 야곱의 우물, 생활성서, 참 소중한 당신 등 교회 내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수필집이다. 그는 평범하지만 평탄하지 않은 삶을 그리면서도 성경과 영성에 눈길을 떼지 않는다. 일상에서 신앙을 찾으며 엄숙함 없이 편안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톨릭신자가 읽으면 신앙과 일상생활을 연결할 수 있고, 비신자가 읽으면 편안한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서 가톨릭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인홀트 지음 / 장익 옮김 / 분도출판사 / 116×188 / 128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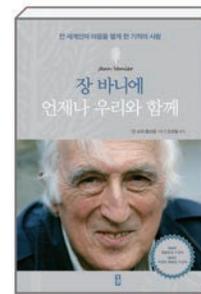
예수의 수난·죽음·부활에 대한 라인홀트 슈테히 주교의 첫 묵상집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실한 환상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그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 예수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을 되짚으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난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밝혀낸다. 이 책은 슈테히 주교의 바티칸 라디오방송 강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쉽고 짧으면서도 뜻이 깊으며, 주교가 직접 그린 성경 속 정경이 함께 들어 있어 깊은 묵상으로 이끈다.



내면의 샘

안셀름 그렌 지음 / 김선태 옮김 / 바오로딸 / 128×188 / 204쪽 / 6,000원

사순 시기의 목적은 우리가 걸어 올릴 수 있는 샘을 찾는 데 있다. 수많은 이들의 영적 여행에 동행해온 독일의 영성이자 그린 신부는 이 책에서 사순 동안 각자 안에 묻혀 있는 내면의 샘을 찾도록 제안한다. 단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사순 제1주간부터 제5주간까지 매주 한 가지 주제로 묵상과 실천을 이끌어낸다. 성주간부터는 날마다 그날 복음 말씀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인도한다.



장 바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안소피 콩스탕 지음 / 고선일 옮김 / 도서출판 툴 / 140×205 / 340쪽 / 15,000원

『장 바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는 장애를 가진 이들, 모욕을 받는 이들, 버림받는 이들 등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사순 시기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온정이 흘러넘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윤경일 지음 / 서교출판 / 150×205 / 372쪽 / 15,900원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한 끼의 식사기금' 윤경일 이사장(2017년 가톨릭대상 정의평화상 수상)이 발로 쓴 구호활동기이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저자가 2004년 이래 최근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를 수시로 오가며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 주고, 빈곤 퇴치와 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구호사업과 자활 프로그램을 펼치는 과정에서 절대빈곤에 처한 슬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에피소드 38편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다.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를레이 자농 지음 / 김동주 옮김 / 성바오로 / 128×188 / 176쪽 / 12,000원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전(前)작 『참 소중한 이야기』 그리고 『참 믿음직한 이야기』와 더불어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만큼 인간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을까? 또한 사랑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듯하지만, 그것보다 더 알쏭달쏭한 말이 있을까? 이 책은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그림을 통해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면서 진정한 사랑의 기본을 소곤소곤 얘기한다.

시가 있는 풍경

신앙 선조들의 길



김용해 요한 / 시인

세상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세월도 가고 인생도 갑니다
슬픔도 가고 기쁨도 가고
삶도 죽음도 모두 떠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빛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온 선조들이여

우리도 당신 뜻을 따라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3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해 12월 6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3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82년에 제정된 가톨릭대상은 사랑의 실천, 정의 구현, 인류문화 창달을 위해 이바지한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 선발하여 시상해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암 수술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30년간 봉사의 삶을 걸어온 안여일(데레사, 수원 별양동 성당) 자매가 사랑부문에서, 13년간 최빈국에서 빈민구호활동을 펼쳐 온 윤경일(아오스당, 부산 좌동 성당) 형제가 정의평화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안여일 자매는 수상소감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이 상을 받지 않아도 아쉬울 것 없는

삶인데, 큰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평화부문 수상자인 윤경일 형제는 “그동안 가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곧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봉사해왔다.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아주고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 큰 상을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조규만 주교는 “요즘 우리 사회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라면서 “두 분에게는 이미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오늘 이 상은 이 땅에서 미리 받는 작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한 기쁜소리합주단(명동 대성당 성음악분과위원회 소속)의 연주로 시상식을 마쳤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규만 주교와 유수일 주교, 교회 인사를 비롯하여 60여 명의 축하객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설립 50주년 맞이한 한국평협, 제22대 회장에 손병선 회장 선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한국평협은 이날 총회에서 2017년 결산 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한국 평신도 회년과 평협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회년의 정신과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문화복음화 사업으로 '독후감 공모'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임원 개선이 있었다. 한국평협을 이끌어갈 제22대 한국평협 회장으로 서울평협 손병선(아우구스티노, 66) 회장이 선임됐다. 손 회장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심적 부담이 크지만, 주님께 순명하며 겸손한 봉사자, 섬기는 리더로서 직분에 충실한 도구로 쓰이는 데 성의를 다하겠다."고 인사하며 한국평협을 함께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앞서 확정된 회년 사업과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등 기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조직의 재정비와 내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구와 제 단체 간의 연대와 친교를 강화해나가고, 소외계층과 청장년 사목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국평협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는 "설립 50년을 기념하는 올해 평신도 회년이 앞으로 평협이 살아갈 50년의 토양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향후 50년을 향해 힘차게, 그러나 겸손되게 한마음으로 나아가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파견미사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 조규만 주교가 집전했다. 조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올해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맞이한 평신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성실함을

갖고, 우리의 목표이신 주님께 충실한 한 해를 보내자."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제48회 정기총회 개최 - 제22대 서울평협 회장에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형제 선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13일 토요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회회 53명, 42개 회원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제48회 서울평협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기념미사에서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는 "하느님은 필요할 때마다 특정한 인물을 부르신다. 왜 그러시는 걸까? 당신 구원의 일꾼으로 쓰시려 함이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고 선택된 우리에게 은총과 과제가 주어진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이들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자. 하느님께서 부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지난해 평신도주일부터 시작된 '한국 평신도 회년'을 살기 위한 실천 운동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나누고 단체 해산에 대한 회칙 개정과 임원 개선이 있었다. 이날 제4호 안건으로 제22대 서울평

협 임원 개선이 있었다. 조성풍 담당사제가 교구장의 뜻을 전달하면서 제22대 신임회장으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서초동본당, 제21대 서울평협 부회장) 형제가 선임되었음을 발표했다.



신임 손병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막중한 이 직분을 감히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이 있지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품고 나아간다면 고난과 힘든 일도 거뜰히 기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는 주님께 맡기고, 옆은 성모님께, 앞은 저희 모두 함께 나아가며 한국 평신도 회년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신임 회장은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 총회장과 12지구 회장, 서서울지역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평협에서 부회장, 감사를 거쳤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대전평협 제48차 정기총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2017년 12월 9일 세종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8년 교구 사목지표인 '교구 시노드를 살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는 96개 본당과 21개 단체에서 330여 명의 본당 회장단과 사도직 단체 임원, 평협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여 2017년 한해를 결산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 대전평협 '2018년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 신년교례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20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교구 내 14지구 회장과 평협 상임위원, 교구장 주교, 사목기획국장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광현 회장은 2018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구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주요 사업으로 1) 평신도 회년 기념 '평신도 축제' 2) 지속적인 한생명운동 전개 3) 도보성지순례 4) 사도직단체 행사지원 등을 보고했다.

● 사목기획국 봉사자 피정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사목기획국은 격년으로 사목기획국 소속 단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에는 새얼센터에서 '날마다'(루카 9,23)라는 주제로 28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이날 피정에서는 진산성지에서 사목 중인 김용덕 신부님의 '오늘의 순교'라는 주제 강의와 찬양기도 등을 통해 현재 삶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세계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동빈, 담당사제 이용권)는 지난 1월 2일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평협 주관으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교구청 직원과 교

구 단체, 교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평화의 날 미사와 신년교례회를 거행했다. 이날 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새해를 맞아 교구민들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고, 미사 강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을 주제로 발표한 담화를 소개했다. 이후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교례회가 이어졌다.

● 해외 선교사 파견미사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22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 평협 주관으로 4명의 사제[김태영 신부(태국), 정성종 신부(일본), 신경섭 신부(호주), 이혜성 신부(미국)]와 평신도 박효원 자매를 위한 선교사 파견미사를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교구 사제단 주례로 봉헌했다.

정신철 교구장은 인천교구가 처음으로 해외선교사를 파견하는 뜻깊은 미사의 강론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 마음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정화되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격려하며, 신자들에게 해외 선교사로 파견되는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미사에는 이용권 사무처장 신부의 선교사 소개와 함께 네 명의 사제와 한 명의 평신도 선교사에게 파견 임명장 수여와 서약, 축복기도, 십자가 수여 후 교구 평협에서 준비한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이후 사제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인사말과 교구 합창단의 축하 후 교구장의 장엄강복으로 행사를 마쳤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8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2~3일 석모도 자연휴양림에서 영성지도신부와 상임위원 및 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서는 2018년 복음화 계획 검토와 예산 심의를 하고, 2018년 한 해를 더욱 알차고 활발하게 활동하며 보낼 것을 다짐하였다. 수원교구 평협에서는 매년 초 사업 및 예산 심의를 위한 연수를 1회 개최하고 있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연수 및 사목방문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평협 및 교구인준 단체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연수 및 2018년도 사목방문을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이근덕 신부의 2018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오후에는 각 단체 임원 소개와 2018 사목방문으로 각 단체의 자료 검토 및 단체 운영의 어려움 등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파견미사에서 이성호 주교는 "내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무의식 중에 남에게 주는 상처, 나의 결점과 나의 단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의 완전함을 자신도 모르게 주실 것이며,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 치유를 해주실 것"이라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협 총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이하 원주평협)는 지난 1월 20~21일 강원도 치악청소년수련원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임 회장에는 신동주 회장이 임기 2년으로 연임됐다. 교구 단체와 지구, 본당 소속 180여 명의 평신도 대표들은 총회에서 '교구 평신도 회원 실천 다짐'을 바탕으로 본당과 지구, 단체의 지원방안 및 신심, 교육, 행사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원주평협이 교구장 사목교서에 근거하여 마련한 회원 실천 다짐은 △ 하루 한 번 이상 가족 간 사랑과 감사의 인사하기 △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삼종기도와 식사 전후 기도 및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 사회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하기다.

총회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교육비를 본당이나 교구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성가정에 선정된 가정들을 초대해 나눔 행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구역 공동체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해 3월 착공 예정인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조규만 주교는 파견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 2018년 사제단 및 수도자 평신도외 제 단체장 신년하례회



지난 1월 2일 원주교구는 원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및 수도회, 그리고 평협과 산하 단체장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공식 행사를 마치고, 원주교구 평협은 만찬 행사를 주관하였다. 만찬장에는 교구평협 임원 및 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교구장 조규만 주교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 주교는 올해 교구에 중대 사업과 행사가 많은 만큼 평신도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요청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8년 의정부교구 평단협 1차 정기모임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효수)는

지난 2월 22일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의정부교구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한효수 평단협 회장이 단체장 소개 및 인사 등의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 주요 행사(평신도 회년 기념 심포지엄, 평신도 회년 기념 성지순례, 2018년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 2018년 정기총회) 및 주요 사업과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회 단체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단협 단체장들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상부상조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심 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모든 평신도를 위한 소통의 중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신임 단체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회장은 “화합과 교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전임 회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새로 취임한 회장들께서도 그 뜻을 이어 받아 교회에 봉사하고 더욱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교구 단체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며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평협, 2018년 1월 동계피정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도 손삼석 주교, 회장 도용희, 이하 부산평협)는 지난 1월 6~7일 삼랑진 김범우 순교사성지에서 평협 상임위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정을 실시했다.

이날 피정은 손삼석 주교의 ‘대원군 후손들의 천주교회로의 귀의’라는 주제로 한 특강, 순교성지사목한건 신부의 ‘새 복음화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한 특강, 그룹 주제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평신도 회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교회 봉사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 부산교구 평협 제42차 정기총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양산 정하상바로영성관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총회는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의 교

구장 2018년 사목지침 해설, 교구 및 울산대리구 평협 정기총회, 그룹 토의, 손삼석 주교의 신년 인사,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과 치유와 해방 속에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파견미사 중에 선교상, 평신도 교리교사상(15년, 10년, 5년), 사랑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 부산교구 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1년 개근 시상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윤지충 바로로 의

123위의 시성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와 이벽 요한세례자 외 순교자들의 시복을 지향하는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를 주관하고 있다. 부산평협은 201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삼량진에 있는 김범우순교자성지를 도보순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27일에는 1년 개근자 3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사제 18명 외 1700여 명의 신자가 도보순례를 하였다. 이날 개근상을 시상한 부산평협 도용희 회장은 폭우와 흑한에서도 도보순례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의 열정과 기도로 빠른 시복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협 정기총회 개최, 길병석 회장 연임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지도 서철 신부, 이하 교구 평협)는 201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교구 연수원에서 제41회 본당평협 회장단, 단체장 연수 및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

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연수는 강의와 분임토론 등으로 진행되었고, 이튿날 총회에서는 20대 청주교구 평협 회장 선출이 있었다. 20대 회장으로 길병석 19대 회장이 연임되었다. 길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도하는 평협, 말씀중심의 평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협 제48차 정기총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박창균, 총회장 안상덕)는 지난 1월 27일 마산 웨딩그랜드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22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행사는 시작기도와 더불어 담당사제, 신임본당회장, 교구단체장, 교구회장단 소개가 있었으며, 지구별, 단체별 순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안상덕 총회장은 2018년 교구평신도사도직 활동지침서 발표를 통해 교구 평협 개요와 사업 안내, 그리고 교구장 사목교서의 삶과 지표에 따라 희년을 사는 평협인의 평신도사도직 실천운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2018년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회칙 개정이 있었다. 또한 교구평협 제25대 임원으로 총회장 한일문 (하상바오로, 사파동 본당), 수석부회장 백권철(바오로, 사림동 본당), 여성부회장 심영선(루치아, 월명 본당), 감사 장원홍(스테파노, 칠암동 본당), 이화수(다미아노,

복신동 본당)가 선출되었다. 이어서 배기현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9회 복음화대상 시상식에는 창원 명서동 본당 공경하를 어머니Pr.이 선교대상 수상하고, 창원 사파동 본당 김옥련(세레나) 씨와 창원 덕산동 본당 풍호구역 소공동체가 선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파동 본당 창조주의 어머니Pr.이 회두대상을, 덕산동 본당 김인희(이사벨라)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교구평협 상임위원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



마산교구 평협은 지난 2월 23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제25대 평협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의는 50여 명의 신임 평협 상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박창균 신부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상임위원 소개 및 상임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루어졌다. 이어 본 회의 내용으로 정기총회 이후 한국평협 정기총회 참석 보고 등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평신도 희년 홍보 및 계획, 평협 운영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고, 단체별 진행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의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바오로, 담당사제 김정현)는 지난 1월 6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신년인사회 평가, 사제서품식 준비, 1월 27~28일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점검이 있었다.

●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월 27~28일 농은수련원에서 2018년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를 가졌다.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두 번째 해인 올해를 본당 쇄신의 해로 정하여 교구 내 40개 본당에서 138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5가지 실천사항을 정하여 각 본당에서 실천하기로 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신년하례식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 김정용 신부, 이하 광주평협)는 지난 1월 1일 광

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 및 교구단위 제 단체 대표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먼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후,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가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과 함께 2018년 한해를 힘차게 열었다.

● 평협(47차) 및 여성위원회(14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평협은 지난 1월 20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평협 제47차와 여성위원회 제14차 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했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여성대표, 교구단위 제 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평신도 희년의 기쁨'을 주제로 한 나현식 전 회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선출이 있어 제35대 회장으로 신동열(리카르도, 양산동 본당), 감사 신인현(요셉, 효덕동 본당), 김혜숙(안젤라, 광주가톨릭합창단)가 선출되었다.

● 평협 및 여성위원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광주평협은 지난 2월 13일 교구청 소성당에서 평협과 여성위원회 신·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임기를 마친 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신임 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는 지난 1월 6일 오후 2시부터 교구청 대강당에서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평단협 소속 제 단체 회원과 본당 사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과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

며, 회칙개정이 이루어졌다. 특별히 2018년도 1월 새로 출범하는 평단협 3기는 1970년에 발족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기로부터 이어져온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평단협 24기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새로 선출된 한병성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평신도사도직단체장과 본당사목회장이 교구평단협에 연대하여 실질적인 평신도 공식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 1차 임원 워크숍 개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주요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 희년 맞이 도보순례(초남이 성지에서 치명자산 성지까지),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관련 정신운동 추진(기도운동, 답게살기 위한 본당 순회 강사인력풀 구성, 숲정이주보 고정지면을 활용한 답게 살겠습니다 실천사항 홍보, 해외 빈민을 비롯한 불우이웃돕기), 유성이 뮤지컬 공연 유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참석자들에게 강복을 주고, "순교자의 고장인 전주교구 평신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아주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런 역할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1/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는 지난 1월 25일 가톨릭회관 2층 회의실에서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개설 운영했던 사회교리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 다음 교육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사업 실적과 결산을 검토하

고, 금년도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교구 평협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지도신부로 재임해오다 이임하는 고병수 신부에 대한 송별연을 가지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8년도 교구 평협 정기총회 개최

제주교구 평협은 지난 2월 25일 가톨릭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 승인, 금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비롯한 예산안을 확정시켰다. 예산의 특징은 올해가 평신도 희년인 점을 감안하여 본당 총회장과 교구단위 단체장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나간다는 취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비롯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희년의 기쁨을 만끽하며 전 신자들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당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평협에서 추진하는 전세 임대료 동결 운동도 적극 확산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푸르실로
한국협의회

● 제49차 푸르실로 한국협의회 총회 개최
- 높은 이상, 완전한 순종,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 복음화를 위해 일할 것 다짐



푸르실로 한국협의회(회장 서왕석, 담당사제 이재경)는

지난 2월 24~25일 경기도 안성 죽산성지에 있는 수원 교구 영성관에서 제49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각 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와 주간, 한국협의회 임원들은 의안 심의를 통해 △「한국 꾸르실료 50년사」 편찬 △「꾸르실료 운동의 기본사상」 개정 3판 출간에 따른 용어 통일안 논의 △ 2019년 제17차 전국 울뜨레야 개최 △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등 결의 △「울뜨레야」지 활성화를 위한 교구참여 확대 △「명도장학회」 지원 △ 해외 한인 꾸르실료 운동 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의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각 교구 꾸르실료 임원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타 교구 임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각 교구 꾸르실료 운영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총회 파견미사를 집전한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목숨으로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성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하자.”고 강조하며, “높은 이상, 완전한 순종,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 복음화를 이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15개 교구 꾸르실료 담당 사제와 주간, 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제50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는 내년 2월 28일~3월 1일 부산교구에서 개최된다.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청소년 모임 '3젠 대회' - '마리아네 민박'에 모인 전국의 청소년들

포콜라레 청소년들의 모임인 '3젠Gen운동'은 지난 2월 23~25일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 '2018 열린 3젠 대회'를 가졌다. '마리아네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2박 3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성모 마리아를 삶의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 복음 말씀을 생활화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인장 마리아 알기〉, 〈투숙객과 친해지기〉, 〈비긴 어게인-새로운 여행〉 등 매일의 소주제에 따른 워크숍과 묵상, 축제 등으로 이어진 이번 대회에는 서울, 인천, 대전, 청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남녀 중고등학생 70여 명이 참가했다.

●

●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 - 포콜라레,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포콜라레 영성에 기반을 둔 보편적인 형제애를 정치 부문에 전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언어 순화를 통한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 상은 2011년부터 매년 2월 수여되고 있으며, 전년도 한 해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대상 수상자 박찬대 의원을 포함하여 5개 분야에서 총 22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 포콜라레, '본당운동' 회원 연례피정 - 오는 6월 열린 모임



일치의 영성을 본당의 삶 안에도 가져가고자 하는 포콜라레의 대중운동인 한국 '본당운동(Parish Movement)'은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 <2018 회원 연례피정>을 가졌다. '본당운동'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한 경험을 나누며 본당 공

동체의 활성화와 일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일치의 영성을 교구와 본당, 수도 공동체에 가져가라고 요청한 후부터 시작됐다. 한국 '본당운동'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2018 본당운동 피정>을 오는 6월 6일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경북 포항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 강도의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초토화된 포항 지역의 재난구호 성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빈첸시오 회원들이 22,740,000원의 사랑의 성금을 모금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2017년 12월 29일 모금된 성금 22,740,000원을 흥해 성당 및 피해 교우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청원하며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에게 전달했다. 앞으로도 한국 빈첸시오회는 재해 재난 지역은 물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 이방인, 난민들을 위해 섬김의 태도로 봉사하며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 2018년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회장 윤대인, 담당사제 임인섭)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6일부터 1박 2일간 광주 대교구(회장 임채욱) 목포 레지오마리에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총회에는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2017년도 활동 및 결산 보고와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윤대인 회장과 감사인 천교구 회장 김순현, 의정부교구 회장 방대식의 연임을 의결하였다. 또한 2017년도 차기이월금을 회보 <샘물>지의 2회 발행 비용에 충당기로 하였고, 평신도 혁년 사업으로 이웃돕기 실천을 교구별 경제인회에서 자율 추진키로 하였으며, 2019년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지를 의정부교구로 확정하였다.

이어서 광주대교구 옥현진 주교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했다. 옥 주교는 강론에서 '톨스토이의 3가지 행복의 조건(지금, 지금 하는 일, 지금 같이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며, 가톨릭경제인들이 세상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제인으로 우뚝 서기를 당부했다. 이날 전국총회에는 전국협의회 산하 9개 교구 중 서울과 인천,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광주, 제주 8개 교구 임원과 회원 등 53명이 참석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을 함께했다.

한국 가톨릭 간호사 협회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지난 2월 3~4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제40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피정을 개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주제로 한 이종훈 신부의 특강이 있었으며, 대의원 12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단 선출이 있었다. 신임회장으로 박호란 데골라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제1부회장에 한종숙 체칠리아, 제2부회장에는 김미경 가타리나, 감사에는 배영이 체칠리아, 박인옥 베네딕타 자매가 선출됐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2017년도 정기총회, 가톨릭회관에서 개최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회장 윤영수, 담당사제 김영철)는 지난 1월 2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각 교구 회장을 비롯하여, 추천회원 38명(총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

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활동목표를 '성령 안에서 일치하여 개인의 성화를 통한 봉사 은사의 성과와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하여 교회 발전에 기여하자'로 정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 제35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개최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는 2017년 12월 13~14일 서울 한남동 끈벚두알 피정의 집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봉사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정기총회와 회장단 피정을 개최하였다. 13일에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찬양, 회장단 회의로 다짐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14일에는 총회에서 사업 및 예결산 승인 절차가 있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각 선교회 임원과 봉사자들은 지난해 활동과 신년 계획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전하는 선교회의 소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 2018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간부 연수 및 신년 하례식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단장 조상현, 담당 사제 이정화)가 주관한 2018년 간부 연수 및 신년 하례식이 1월 6일 전남 목포 한국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에서 열렸다. 2018년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1년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 평의회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직속 꼬미시움, 구리아 4간부 3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사목국장)는 마니피캇을 재현하는 평의회 간부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이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파견미사와 시상으로 연수를 마쳤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한국ME 만남의 집 축복미사

2017년 12월 27일 등촌동 ME 만남의집 축성식이 있었다. 새로 매입한 ME 만남의집은 2018년부터 ME 주말을 실시할 수 있는 '피정의 집' 용도로 마련됐다. 이를 봉헌하기 위하여 한국ME 상임위원, 역대 한국ME 대표팀, 서울ME 발표팀 사제, ME 원로 사제, 역대 서울ME 대표, 발표팀 부부들이 참석하여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축성식 미사를 봉헌하고 경과보고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2018년 사제모임



한국ME 협의회는 지난 1월 15~16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사제 13명과 역대 한국ME 대표부부, 교구대표 및 상임위원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중국 Nantong에서 실시한 Asia Program ("Love Changes Everything"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전차와 한국ME 현안을 공유하였다.

● 154차 디퍼주



한국ME 협의회는 2월 23~25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154차 디퍼주말을 진행했다. 지도사제 한 명과 발표부부 한 부부 진행으로 참가부부 9부부, 사제 4명이 참석하여 자신을 보다 깊게 살펴보고, 부부 안에서 하느님을 보다 깊게 체험함으로써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하는 ME 봉사자 양성 교육이 실시했다.

● 2018년 한국ME 상반기 총회



한국ME 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3월 1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한국ME 대표팀 7개 상임위원과 전국 15개 교구 대표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과 기타 안건에 대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화방송과 가톨릭 신문 기자들도 참석하여 한국ME 홍보를 위한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는 평신도들의 다짐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며

-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하며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고백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특별히 태아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엄연한 살인죄임을 천명하며 낙태죄 존치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별히 북한 이탈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가정, 이웃,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하고 화해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 교회 신문과 잡지, 서적을 구독하며, 교회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다짐문)



Editor's Letter

알렐루야! 주님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견딘 새봄이 어여쁘고 찬란합니다. 모진 수난과 죽음을 이겨낸 부활이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추위와 눈보라 뒤에 따스한 봄날이 올 것이며, 수난과 죽음 뒤에 빛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안배에 따라 순리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곧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올해는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결성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평신도 회년'이 선포되어 평신도들이 새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 신심을 다지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4년 전에 복음의 진리를 찾던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한국천주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기이자, 오늘의 평신도들이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거듭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평신도》지도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모진 박해와 순교를 감내하며 하느님을 증거하였던 분들의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평협 50주년을 대비하여 작년부터 게재해 온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과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를 올가을 호까지 연재하고,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와 '평신도가 된다'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것입니다. 이어 <나눔>에서는 이번 호에 신설된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그리고 '나의 신앙 선조'를 연재합니다. <이야기>에서는 지난해부터 연재해 온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와 더불어, 이번 호에 신설된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주보성인과 나'를 게재합니다. 뒤이어 <배움>에서는 '평신도 양서'와 함께, 이번 호에 신설하여 연재하는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을 실습니다. 그리고 <소식>에서는 예전처럼 각 교구 평협과 회원 단체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편집장을 맡아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복음적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희망을 잃거나 희망이 꺾이지 않는 삶,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평신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활기찬 봄날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8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안영근	안토니오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